

석사학위논문

어미 ‘-도록’의 문법적 의미 분류와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방안

2017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임 나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윤주

어미 ‘-도록’의 문법적 의미 분류와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방안

A study on the grammatical semantic classification of ending
'-dorok' and the way of presentation in the Korean textbook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임 나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윤주

어미 ‘-도록’의 문법적 의미 분류와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방안

A study on the grammatical semantic classification of ending
'-dorok' and the way of presentation in the Korean textbook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임 나 희

임나회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어미 ‘-도록’의 문법적 의미 분류와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방안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임 나 희

요즘의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의 흐름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상에 따른 교재 개발과 더불어 교재 내에서 학습하여야 할 문법, 기능 등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교재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 개발 연구는 현재의 교수법에 따라 제시 방향이 결정되는데,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중요시하는 요즘의 교수법을 반영하여 문법의 제시보다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기능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재 제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현재 대학에서 출판한 교재들에서도 문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제약, 연습 등의 제시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재 현황은 교재 제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활동지가 추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교사의 교육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에 대한 형태제시와 기계적 연습과 같은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교수-학습의 매개체인 교재에서의 문법 항목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법항목 중 한국어교육용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이 문법 항목을 한국어 교재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교재 제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문법 항목 중 어미 ‘-도록’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배경과 교재 제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재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러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도록’에 관하여 ‘목적, 결과, 방향,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 사동, 방식, 도달, 권유, 기준, 의도, 주어의 의지 강조’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의들은 결국 같은 의미를 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로 ‘-도록’에 대한 의미를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으로 추려내었다. 기존 한국어교육에서 통용된 ‘-도록’에 관한 의미는 ‘도급, 정도, 목적’이었으나 도급과 정도의 의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명령, 권유의 의미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의 구분은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분류 파악을 바탕으로 현재 대학 출판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를 살펴본 결과 2급부터 6급까지 ‘-도록’의 제시 급수가 다양하며, 동사 또는 형용사와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한 교재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형용사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교재에서 형용사하고 결합된 예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록’의 제시는 1회에서 3회에 걸쳐 교재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었으며 ‘-도록’의 의미 설명보다 예문이나 연습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록’을 3급과 5급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의미 구분과 급·주제 설정 기준은 첫 번째로 급 수준에 맞는 의미 제시와 분량, 두 번째는 구어·문어의 중요성, 세 번째는 ‘-도록’의 사용 환경에 따른 구분이다. 즉 ‘-도록’에 포함된 다양한 의미가 수준에 맞게 적절한 분량으로 분포되어야 하며 ‘-도록’의 의미 중 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중급에서 제시하고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고급에서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한 한국어교육용 문법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문법 중 ‘-도록’이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다양한 의미와 제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관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구체적인 교재 제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재, 한국어 문법, -도록, 어미, 의미 분류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선행 연구	3
1.3 연구 방법	7
II. 어미 ‘-도록’의 문법적 의미 분류	9
2.1 ‘-도록’의 이론적 배경	9
2.2 한국어교육용 ‘-도록’의 의미 분류	27
III. 한국어 교재에서의 ‘-도록’ 제시 현황	30
3.1 교재 분석 방법	30
3.2 분석 대상 교재 목록	32
3.3 분석 결과	34
3.4 ‘-도록’ 제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0
IV. 한국어 교재에서의 ‘-도록’ 제시 방안	53
4.1 급 설정 및 주제 선정	53
4.2 3급 제시 방안	55
4.3 5급 제시 방안	65

V. 결 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82

표 목 차

〈표 1〉 어미 ‘-도록’의 문법적 분석 자료	10
〈표 2〉 사전식 서술 자료에서 나타나는 ‘-도록’의 의미	18
〈표 3〉 문법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는 ‘-도록’의 의미	26
〈표 4〉 사전과 문법서에서의 ‘-도록’의 의미 분포	27
〈표 5〉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 분석 대상 목록	34
〈표 6〉 『재미있는 한국어』 3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35
〈표 7〉 『재미있는 한국어』 6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36
〈표 8〉 『서울대 한국어』 3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37
〈표 9〉 『연세 한국어』 3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40
〈표 10〉 『연세 한국어』 4급(1과)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41
〈표 11〉 『연세 한국어』 4급(9과)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42
〈표 12〉 『이화 한국어』 2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43
〈표 13〉 『이화 한국어』 4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45
〈표 1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48
〈표 1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5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49
〈표 16〉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제시 분포	51

그 립 목 차

〈그림 1〉 3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의미 제시 방안	57
〈그림 2〉 3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형태 제시 방안	59
〈그림 3〉 3급 본 교재에서의 기계적 연습 제시 방안	60
〈그림 4〉 3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심화 연습	61
〈그림 5〉 3급 Workbook에서의 1번 문항	62
〈그림 6〉 3급 Workbook에서의 2번 문항	63
〈그림 7〉 3급 Workbook에서의 3번 문항	64
〈그림 8〉 5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의미 제시 방안	66
〈그림 9〉 5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형태 제시 방안	67
〈그림 10〉 5급 본 교재에서의 연습 문제 제시 방안	68
〈그림 11〉 5급 Workbook에서의 1번 문항	69
〈그림 12〉 5급 Workbook에서의 2번 문항	70
〈그림 13〉 5급 Workbook에서의 3번 문항	71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흔히 교육의 3요소는 교사, 학습자, 교재라고 한다.¹⁾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과 더불어 교재는 교수-학습의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는 그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재 연구는 한국어 교재 내적 내용이나 기술 방식에 대한 한국어 교재 자체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²⁾,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상에 따른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³⁾ 또한 2000년대 이후로는 한국어 교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초 자료 연구나 현황 고찰과 같은 연구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러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의 흐름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목적 학습자를 위한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요즘의 의사소통식 교수법에 기초하여 교육과정과 목표, 내용, 세부 항목들이 교재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선정(2010)에서도 교재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를 두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교재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언급된 바 있다.

실제 세상의 모방과 의미 있는 과업들로 특성화된 ‘의사소통식 교수법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지향한다. 그러

1) 민현식(2000), 조항록(2003) 등에서 언급되며 교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2)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언어기능에 관한 한국어 교재 연구로는 심민희(2012), 이시윤(2015), 최정순(2012), 김형복(2013), 구민지(2012), 유현정(2013) 등이 있으며, 외래어교육연구, 높임법 연구, 문화교육 연구 등과 관련한 기능 외 교재 내용 연구는 오미정 외(2007), 이은희(2004), 김정은(2015)를 참고.

3) 일반적으로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김선정(2010)과 같은 한국어 교사 교육용 교재 개발도 최근 들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배경 학생, 난민, 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한 교재도 개발 연구로는 이소영(2008), 김윤주(2012), 김혜련(2013), 고경민(2015), 이은희(2015) 등이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연구로는 한국어교육용 분류사 선정 연구, 교재 용어 분석, 어휘 사용 양상, 연결어미 선정 연구 등이 있으며 오상연(2010), 최윤곤(2011), 김일환 외(2014), 이현정 외(2013)를 참고할 수 있다. 기타 한국어 교재에 대한 고찰·비판의 연구는 고경민(2014), 박나리(2016)을 참고한다.

나 때로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창성을 정확성보다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H.Douglas Brown, 2007;50). 그렇기 때문에 H.Douglas Brown(2007)에서는 통제 연습, 문법 사항, 기타 분석적 도구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단지 실제 세상을 모방한 CLP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형태, 규칙 그리고 언어 구성 원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학습은 단지 우발적인 학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선옥(2013)에서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는 문법적 구조를 다양한 화용적 범주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통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문법적 규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거나 논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제시가 적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문법 제시에 소홀한 교재로 인해 정달영(2012)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살펴보면, 같은 문법 사항을 설명하면서도 그 이론이 서로 다르고, 어떤 문법 사항을 설명하는 메타언어로서의 문법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지향하는 요즘의 교재 연구 현황은 곧 교사의 교육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문법 영역은 교재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교사가 문법 설명과 연습을 할 수 있는 활동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교재가 있음에도 문법 학습이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어 학습 수준의 차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 교육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교수-학습의 매개체인 교재에 문법 항목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법항목 중 한국어교육용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이 문법 항목을 한국어 교재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교재 제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문법 항목 중 어미 ‘-도록’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배경과 교재 제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제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연결어미로 분류되는 ‘-도록’은 그 의미를 조사하다보면 단순히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종결어미, 부사형 전성어미의 역할도 있으며, ‘목적, 정도, 사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어의 의지 강조, 시간의 한계, 도달’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장채린 외(2013)에서는 문법 항목 선정과 복잡도를 산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의미적 복잡도를 산정하는 기준은 의미의

수와 선행 용언의 의미 제약 여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록’은 기존 논의들을 조사해보았을 때 13가지의 의미가 추출되었다. 물론 의미는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3가지의 용어로 언급된다는 것은 의미적 복잡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록’을 주의 깊게 살펴볼만 하다. 즉, ‘-도록’에 대한 정의와 의미 분류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록’은 더 연구되어야하는 연결어미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또한 ‘-도록’은 모든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사용 빈도 또한 높은 문법 군에 속하고 문어적 특성이 강한 문법이기 때문에 학문 목적 학습자가 늘어나는 한국어교육 현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표현이다. 이러한 근거로는 이현정 외(2013)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현정 외(2013)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된 연결어미와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의 6종 교재에 제시된 연결어미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용 연결어미 목록’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어교육용 연결어미 중 ‘-도록’은 출현 빈도 순위가 총 51개 중 19위에 위치하여 1000회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6종의 교재 모두에서 ‘-도록’이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현재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도록’이 외의 문법들은 대체로 비슷한 학습자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도록’은 교재별로 초급에서 고급까지 제시 순서가 상이하며 ‘-도록’의 의미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도 다르다. 이러한 점 또한 문법 중 ‘-도록’이 한국어교육에서 의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연구에서 ‘-도록’의 교재 제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어미 중 ‘-도록’을 중심으로 문법의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의 교재 제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 문법 교육은 한국어 문법 용어나 설명 방법, 교육 실태 연구와 같이 대체로 거시적으로 이루어졌다(이영민, 2004; 방성원, 2004; 이영숙, 2004).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이은희(2004)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별 문법 항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후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통해 보조사, 높임법, 부사격 조사와 같이 한국어 문법 중 일부를 지정한 더욱 미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은희, 2004; 송대현, 2014; 서희정, 2012). 또한 이제는 보조사, 높임법 등의 체계 또한 큰 범위가 되었으며, ‘는, 도, 이/가, 으면’ 등과 같이 더욱 더 세분화되어 논의되고 있는 흐름이다(서희정, 2012; 이해영, 2004; 김문기 외, 2016).

한국어 교재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이론을 교실 학습에 적용하는 것은 교수-학습을 용이하게 하며 교실 학습의 질을 향상시킨다. 교실 학습에 필요한 이론을 가시적으로 적용시키고 교사에게 교수 방법과 학습자에게 학습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재이다. 그러나 민현식(2000)에 따르면 “문법의 외부 구조에 대한 기술만 겨우 갖추었을 뿐 문법 체계의 심도 있는 설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용어 체계와 하위 분류도 상세화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제열(2001)에서는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설명과 이해에 가장 많이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문법이지만 교재에서의 문법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법 설명의 부족한 부분을 교실 수업으로 미루어 놓은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전통화(2011)에서도 학습자가 문법 사용 환경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교재의 문법 설명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시킬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어 교재 연구의 당연한 수순이다.

문법 항목 중 ‘조사’ 연구 다음으로 많은 어미 연구 중에서 ‘-도록’에 관한 연구로는 윤평현(1981), 윤평현(1988), 오윤경·신연수(2015), 백낙천(2009), 서정수(1987), 김혜성(1993), 이은희(2007), 포정원(2015)등이 있다. 그러나 윤평현(1981), 윤평현(1988), 오윤경·신연수(2015), 백낙천(2009), 서정수(1987)의 경우 국어학 또는 통시적 연구이므로 ‘-도록’에 대한 의미와 용법 설명을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 김혜성(1993), 이은희(2007), 포정원(2015)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김혜성(1993)은 ‘-도록’의 결합 양상을 살피고 ‘-도록’을 구문1과 구문2로 나누어 두 구문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도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ㄱ. ‘-도록’절의 상위문 서술어로는 형용사보다 동사와의 결합이 더 자연스럽다.

ㄴ. 명령형일 경우 서술어가 생략되고 마치 문장의 종결어미처럼 오기도 한다.

ㄷ. ‘-도록’의 상위문 서술어에는 ‘알다, 깨닫다, 바라다, 눈치 채다, 느끼다, 생각하다, 확신하다, 걱정하다, 믿다’ 등은 올 수 없다.

ㄹ. ‘-았/었-, -겠-, -더-’ 등과 같은 시상형태소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ㅁ. ‘-도록 하다’는 ‘-게 하다’와 교체할 수 없다.

김혜성(1993)에서는 ‘-도록’이 종결어미처럼 기능을 할 수 있고, 상위문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때 쓸 수 있는 어미라고 보았다. 또한 ‘-도록’절의 시상형태소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위문과 내포문의 시상이 항상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도록 하다’ 형태의 경우 상위문이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일 경우 ‘-게 하다’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내일 떠나도록 하겠소?-내일 떠나게 하겠소?”, “책을 읽도록 해라-책을 읽게 해라”, “잠을 자도록 해라-잠을 자게 해라”의 예시와 같이 ‘-도록 하다’가 사동의 장형 표현인 ‘-게 하다’와 완전히 대체되지도 않으며 제3의 인물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사동의 의미를 가지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록’을 구문1과 구문2로 나누었는데, 구문1은 ‘-게’와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고 상위문과 내포문이 동시에 시간상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며⁵⁾, 구문2는 ‘-게’와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상위문과 내포문의 시간이 서로 일치하거나 상위문보다 내포문이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구문을 말한다.⁶⁾ 즉, ‘-게’와의 교체여부와 시간상의 진행 또는 완료를 나타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록’에 관한 결합 제약을 파악할 수 있으며 두 개의 구문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을 분리하는 기준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다소 애매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병이 빨리 낫도록 치료를 열심히 받으세요.”라는 문장은 상위문과 하위문의 시간상의 진행을 구분하기 어렵

5) “날이 밝도록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 성희는 밤새도록 울었다.”

6) “소리가 들리도록 창문을 연다,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한다.”

기 때문이다.

이은희(2007)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코퍼스 자료를 바탕으로 ‘-도록’과 ‘-게’의 예문을 비교·분석하여 의미 양상을 추출하고, 학습자 작문에서 나타난 ‘-게’와 ‘-도록’의 오류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의미 양상은 ‘-게’와 ‘-도록’에 결합하는 동사 형용사에 따라 의미를 추출하였다. 즉 “동사 + -게 + 동사, 동사 + -게 + 형용사, 형용사 + -게 + 동사, 형용사 + -게 + 형용사”로 결합관계를 나누고 이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록’의 의미 양상만을 살펴보면 의미의 쓰임에 따라 기본의미, 관용적 의미, 연어적 의미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먼저 “동사 + -도록 + 동사”의 경우 기본의미는 상태, 상황이며, 관용적 의미는 정도, 연어적 의미는 목적, 의도라고 하였다. 또한 “형용사 + -도록 + 동사/형용사”는 기본의미가 상태, 상황, 관용적 의미가 정도라고 제시하였다.

‘-도록’의 오류로는 철자법 오류 외에 의미 혹은 용법과 관련된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희(2007)에서는 ‘-도록’이 주로 중급 이상 수준의 학습자들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대부분의 용례가 오류 사례였음을 지적하였다. 즉, ‘-도록’은 사용의 빈도가 낮지만 그 중에서도 올바르게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록’에 대한 의미와 용법에 대한 정립 및 교수 방안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이은희(2007)에서는 코퍼스를 이용하여 ‘-도록’의 제시 빈도 및 의미 사용 빈도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의미 양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도록’을 기본의미, 관용적 의미, 연어적 의미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의미 분류로, 한국어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의미와 결합 양상이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분석 교재가 2007년 이전에 출판된 것들이기 때문에 ‘-도록’과 ‘-게’의 제시 순서가 달라져 2016년도에 다시 한 번 교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포정원(2015)은 ‘-도록’에만 집중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어사전을 통해 ‘-도록’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보고 통사적 제약을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오류 분석을 실시하고 교재를 분석하여 ‘-도록’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도록’의 의미가 통일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윤평현(1988)에서 제시한 ‘정도, 도급, 목적’의 의미를 기준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재 분석을 통해 ‘-도록’의 제시 순서가 상이한 점과 문법 설명과 예문도 더 설명되어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삼았지만 이를 반영한 교육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통해 ‘-도록’의 의미 분류가 으레 ‘목적’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거나, ‘-도록’에 관한 새로운 의미 정립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도록’에 관한 교육용 의미 파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그 교육내용을 구성하려 함이 보여진다. 또한 국어학에서의 ‘-도록’은 그 의미 분류와 결합 양상이 복잡하여 한국어교육용으로 참고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록’은 사용 빈도가 높은 ‘-게’와 함께 비교·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도록’ 자체에 대한 연구는 위와 같이 몇몇 석사학위논문에서만 논의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미 ‘-도록’은 그 의미 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도록’을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도록’의 교육을 위해선 ‘-도록’에 대한 의미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표제어와 뜻풀이로 정리되어 있는 사전과 한국어의 전체적인 문법을 정리한 문법서를 기반으로 하여 ‘-도록’에 대한 정의와 의미 분류,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록’에 대한 의미 목록을 나열하고 그 중 어떤 것이 한국어교육용으로 적합할 것인지를 가려내도록 한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들을 중심으로 어미 ‘-도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들이 최근 2015년, 2106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수정 개편되었다. 또한 교재 개발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교재 현황 고찰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분석할 교재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출판한 5종의 한국어 시리즈 교재로, 각 6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 출판한 교재 중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언어 기능이 한 번에 들어있는 통합 교재를 중심

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의 경우 최신 교육 경향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총 5종의 시리즈 교재에서 어미 ‘-도록’을 설명하고 있는 급, 단원, 주제, 내용, 예문, 기능별 연습, 워크북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미 ‘-도록’에 대한 제시가 교재마다 얼마나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도록’의 의미 분류와 기존 교재들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재 제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제시 방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따르고 있는 요즘의 교육 경향과 교재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제시할 것이다.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교육 순서에 따라 제시는 의미 제시와 형태 제시로 나누어 구성하고, 연습은 반복 연습 3-4문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며 유의미적 연습은 Workbook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도록’은 그 의미가 많아 한 급에서 한 번 언급하여서는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여러 의미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급 설정은 통사적 제약과 사용 맥락을 기준으로 하였다. 통사적 제약은 ‘-도록’ 자체에 대한 결합 제약이나 결합 양상에 따른 의미 변화를 말한다. 또한 사용 맥락은 ‘-도록’이 ‘비평하기, 소개하기, 주장하기, 조언하기, 감사하기’ 등과 같은 수행 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도록’의 화용적 의미를 말한다. 즉 ‘-도록’에 관한 문법적·화용적 기준을 바탕으로 ‘-도록’을 나누고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도록’에 관한 문법적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문법서 등에서 제시한 ‘-도록’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3장에서는 현재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5종을 분석하여 ‘-도록’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분석한 교재들을 비교·정리하여 한국어 교재 제시 방안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Ⅱ. 어미 ‘-도록’의 문법적 의미 분류

어미 ‘-도록’은 대체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로 본다. 그러나 ‘-도록’에 관하여 부사형 전성어미, 내포문어미, 접속문어미 등 이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명칭은 상이하게 드러난다. 이는 어미 ‘-도록’이 하나의 용법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법서, 사전 또는 학자마다 ‘-도록’에 관한 관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도 이유이다. 이에 ‘-도록’에 관한 문법적 의미와 특징에 관하여 문법서와 사전을 살펴보아 ‘-도록’을 의미·기능적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정의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어디까지의 문법적 의미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2.1 ‘-도록’의 이론적 배경

현재 ‘-도록’이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되고 정립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사전과 문법서를 살펴보도록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국어와 한국어를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한국어 문법과 국어문법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언어에 대한 설명과 관점은 자료마다 다르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록’과 관련한 자료는 국어와 한국어 자료를 모두 살펴보되 분석에 있어서 구분을 두고 의미 분류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제시된 문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도록’을 설명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도록’의 의미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왜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2.1.1 연구 자료 목록

살펴볼 자료로는 사전 4종, 문법서 6종이다. 선정의 기준은 국어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기술한 모든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어미 ‘-도록’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있는 저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어문

법과 한국어 문법은 문법에 대한 서술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비교·고찰하도록 하겠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어미 ‘-도록’의 문법적 분석 자료

분석 자료	구분	세부 분석 자료 목록
사전식 서술 자료	국어사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대사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사전	1. 백봉자(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사전』 2. 이희자 외(2008),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
문법 연구 자료	국어문법서	1. 남기심 외(2007), 『표준국어문법론』 2. 김진수(1994), 『국어접속조사와 어미연구』 3. 김원경 외(2016), 『꼭 알아야 하는 한국어 문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서	1.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2. 허동진(2006),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3.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한국어문법』

먼저 첫 번째 분석 자료인 사전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전이 갖고 있는 서술 방식 때문이다. 사전 중 특히 문법에 대한 서술은 문법 자체에 대한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두어 서술한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한 연결어미 ‘-면서’를 살펴보면, ‘-면서’가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사용한다는 기능을 서술하고,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라는 의미를 서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의 의미와 쓰임을 파악하는 데에 사전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사전은 문법을 의미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법이 몇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문헌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 자료인 문법서의 경우 사전에 비해 한 문법에 대한 의미와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만든 서적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제약이나

화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문법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문법의 의미뿐만 아니라 교육용으로 어떻게 의미 분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국어문법서와 비교하여 한국어 문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록’ 자체에 대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에 통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의미 분류와는 어떻게 다르고 학자마다 얼마나 상이하게 용어를 달리하여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1.2 사전식 서술 자료

1) 국어사전

국립국어원에서 집필한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발행한 사전이며, 현재 511,315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국어대사전』은 국가에서 편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신뢰성이 있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웹서비스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해져 다양한 민간어원이나 신어들이 분기별로 개정되어 수록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도록’의 의미를 2개로 분류하였다.

- (2) ㄱ. ((동사 어간이나 일부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뒤에 ‘은’, ‘도’,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

예)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

손님이 편히 주무시도록 조용히 하여야 한다.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철수는 눈만 뜨면 신이 다 닳도록 돌아다녀요.

학생들은 밤이 새도록 토론을 계속하였다.

- ㄴ. ((동사 어간 뒤에 바로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라01’보다는 덜 단호한 어감이 있다.

예 해산했다가 열두 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2ㄱ)에 따르면 ‘-도록’에는 목적, 결과, 방식,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목적, 결과, 방식, 정도의 의미를 하나의 의미로 묶어 서술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불분명하여 나누지 않았거나 굳이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동사 어간이나 일부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쓰일 수 있고, “뒤에 ‘은’, ‘도’,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고 그 기능을 서술하였다. (2ㄴ)의 정의에 따르면 명령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결어미로도 분류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보아 ‘-도록’의 의미를 나눈 기준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와 같이 기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의미 구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확인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하였으며, 도원영 외(2009)에서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성격이 포괄적·공시적이며 이용자 중심의 정규 대사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도록’의 의미를 3개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 (3) ㄱ. 동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주로 ‘하다’나 ‘만들다’와 함께 쓰여,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하다’가 생략되어 종결 어미처럼 쓰이기도 한다.

예 날이 밝으면 가도록 하여라.

이 약은 식후 30분마다 한 알씩 복용하도록 하세요.

- ㄴ. 동사나 일부 형용사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뒤 절의 일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 따위를 나타내는 말.

예 3학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힘써 주세요.

모두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라.

ㄷ. 동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동작의 정도나 결과, 시간의 한계 따위를 나타내는 말.

예 그는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온몸이 땀에 젖도록 운동장을 달리고 또 달렸다.

(3ㄱ)의 정의를 정리해보자면, ‘-도록’은 주로 ‘-도록 하다, -도록 만들다’의 형태로 명령형을 만들고, ‘-도록’이 종결 어미처럼 쓰일 수도 있다고 정의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도록 하다, -도록 만들다’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다. 또한 “종결어미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도록’이 완전한 종결어미가 아닌 ‘-도록 하다’에서 ‘하다’가 생략된 형태로서, 종결어미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명령의 의미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명령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거나 빈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의미가 가장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3ㄴ)에서는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며 목적이나 방향의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하였다. 이때에 다른 정의와는 구분되는 점이 바로 형용사와의 결합가능성이다. (3ㄱ)이나 (3ㄷ)의 경우 ‘-도록’의 쓰임을 “동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라고 기술하였지만, (3ㄴ)에서는 형용사와의 결합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목적이나 방향의 의미를 가지는 ‘-도록’을 서술할 때에 형용사 어간에 ‘-도록’이 붙은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도록’이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사용될 경우 그 ‘-도록’은 목적이나 방향 따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ㄷ)에서는 동작의 정도나 결과, 시간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세 번째 정의에선 정도나 결과의 의미가 ‘동작’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냈으며, ‘시간의 한계’라는 의미가 등장하였다. ‘-도록’은 몇몇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진 형용사와의 결합을 제외하곤 동작동사와 결합하는 규칙으로 보아 ‘-도록’이 ‘동작’에 관한 정도나 결과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시간의 한계’는 ‘동작의 결과’와는 다르게 ‘연속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정도나 결과의 의미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계나 정도, 결과의 의미는 어떠한 사건의 끝점이 있음을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의미로 묶

어 기술하였다고 생각한다.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사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은 저자인 백봉자가 한국어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해 쉽게 풀어쓴 한국어 문법사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의미 범주가 넓고 서술이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 (4) ㄱ. 의미 선행 동작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를 나타낸다. 문장에 서는 ‘하다’와 같이 쓰여 사동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ㄴ. 시간이나 공간 또는 그 밖의 점에 도달함을 나타내는 경우

예) 그는 12시가 되도록 안 들어왔어요.

우리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학생들은 목이 터지도록 응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마감 기일이 지나도록 일을 못 끝냈어요?

ㄷ. ‘-도록’다음에 ‘하다’나 그 밖의 서술어와 어울려서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사동을 만드는 어미 ‘-게’와 대치할 수 있다.

예) 병이 빨리 낫도록 치료를 열심히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쓰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연습합시다.

유리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눈치 채지 않도록 조용히 나오세요.

ㄹ. ‘-도록 하다’를 1인칭이나 2인칭을 주어로 하여 쓰는 경우

- 이것은 3인칭 주어를 어떻게 하게 만드는 사동의 뜻으로 쓰는 것

인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해서 표현한다.

예) 이제부터는 저금을 하도록 하겠어요.

저도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충분히 쉬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가 불 곁에 가지 않도록 하세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은 (4ㄱ)과 같이 ‘-도록’에 대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설명한 후, 3개의 의미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4ㄴ)에 따르면 ‘-도록’은 시간이나 공간 또는 그 밖의 점에 도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도록’이 어떠한 것이든 한 점에 도달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4ㄷ)이나 (4ㄹ)의 의미는 모두 사동에 관한 것이므로 사동의 의미 외의 모든 의미를 포괄하여 ‘도달함’을 나타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4ㄷ)에서는 ‘-도록’ 다음에 ‘하다’나 그 밖의 서술어와 어울려서 사동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도록’이 ‘-도록 하다/만들다/되다’와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본다. (4ㄹ)를 이어서 보자면 (4ㄷ)과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하지만, 그 중 ‘-도록 하다’의 문형만을 한정하여 ‘-도록 하다’가 주어의 의지를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에서는 ‘-도록’의 의미를 크게 도달점과 사동표현으로 보았고, 사동표현의 의미 중에서도 보조적 연결어미로서의 기능과 ‘-도록 하다’ 문형의 주어 의지 강조 기능으로 나누어 정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마·조사 사전』은 이희자·이종희가 공동 저서로 집필한 사전식 어마·조사 목록으로, 특히 한국어 학습 초급을 대상으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의미 분류가 구체적이며 대치 가능한 문법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 (5) ㄱ. 뒤의 내용이 일어나게끔,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이나 목적을 나타낸다. ‘-게끔’의 뜻.

㉮ 제발 제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책을 가져가기 쉽도록 비닐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나는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몸을 숨겼다.

㉯. (주로 자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이르러 미치는 한계나 정도를 나타낸다. ‘-ㄴ 정도로’의 뜻.

㉮ 그는 몸살이 나도록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땀이 나도록 뛰었다.

㉺. 시간의 한계를 나타낸다. ‘-ㄴ 때까지’의 뜻.

㉮ 밤새도록 일해야 될 때도 있어.
진수는 담배가 다 타도록 앉아 있었다.

㉻. (주로 ‘하다, 만들다’ 등과 쓰여) ‘그렇게 하게 함’의 뜻

㉮ 그는 그녀가 섬을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는 부인이 저녁을 빨리 하도록 했다.
제가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도록 하다’로 쓰여) 어떠한 것을 명령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나타낸다.

㉮ 소화가 안 될지도 모르니, 조금씩 먹도록 해.
몸이 안 좋으면 좀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해요.
맵거나 짠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하세요.

㉽. (종결 어미처럼 쓰여) 어떠한 말의 마지막에서 명령 하는 것을 나타낸다.

㉮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하도록.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자습하도록.
그러면 각자 일을 시작하도록.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은 그 의미 분류부터 상세하다. 먼저,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에서 언급한 ‘-도록’의 의미를 간략히 나열하자면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 목적, 한계, 정도, 시간의 한계, ‘그렇게 하게 함’, 명령, 권유”가 있다. 이에 대한 분류는 크게 연결어미의 ‘-도록’, 보조적 연결어미의 ‘-도록 하다/만들다’, 종결어미의 ‘-도록’으로 그 쓰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를 더 세분화 하여 연결어미의 ‘-도록’은 ‘-게끔’의 뜻을 가진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 목적’의 의미와 ‘-ㄴ 정도로’의 뜻을 가진 ‘한계, 정도’의 의미, 그리고 ‘-ㄴ 때까지’의 뜻을 가진 ‘시간의 한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앞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과는 또 다르게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ㄱ)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에서 정의한 ‘방향과 목적’의 의미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는 다르게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뒤 절의 일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기술한 반면,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에서는 ‘-도록’이 ‘뒤의 내용이 일어나게끔,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이나 목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은 ‘-도록’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는 달리 ‘-도록’을 “문장 주어의 상황적 의도성”을 담은 화용적 맥락에서 정의하였다는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 주어의 상황적 의도성”의 언급은 위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에서도 기술된 사항이다. 즉, 전반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문법을 사용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기술하였다는 또 다른 예로 (5ㄴ)가 있다. (5ㄴ)에서 볼 수 있듯이 ‘-도록’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게 함’의 뜻이라고 유사 대체어로서 제시하고 있다. 즉, ‘-도록’이 사동의 의미를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쉬운 표현으로 ‘-도록’을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5ㄴ)과 (5ㄷ)에서 제시한 의미 분류 또한 이전 자료와는 다르다. ‘시간의 한계’를 개별의 의미로 보고, ‘한계, 정도’의 의미와는 ‘-ㄴ 정도로’와 ‘-ㄴ 때까지’의 뜻으로 분리된다고 서술하였다. (5ㄹ)과 (5ㄷ) 또한 ‘명령’이라는 의미

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닌, ‘-도록 하다’와 함께 쓰여 권유 또는 약한 명령을 의미하거나, ‘종결어미’처럼 쓰여 강한 명령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 쓰임을 위주로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전식 서술 자료에서 나타나는 ‘-도록’의 의미 정의와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같은 문법에 대해 사전마다 분류 방식이 다르고 의미도 다양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2〉 사전식 서술 자료에서 나타나는 ‘-도록’의 의미

사전식 서술 자료	의미 분류	특징
『표준국어대사전』	1. 목적, 결과, 방식, 정도 2. 명령 (종결어미)	• 목적, 결과, 방식, 정도의 의미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 종결어미로서의 의미도 설명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1. 명령 (-도록 하다) 2. 목적이나 방향 3. 동작의 정도나 결과, 시간의 한계	• ‘-도록 하다’에서 ‘하다’가 생략되어 종결어미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도록’이 형용사 어간에 붙어 사용될 경우 목적이나 방향 따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 정도, 결과, 시간의 한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1. 도달점 2. 사동 3. 주어 의지 강조 사동	• ‘-도록’의 의미를 크게 도달점과 사동으로 보았다. • ‘-도록 하다’ 문형이 주어 의지 강조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	1. 방향, 목적 2. 한계 정도 3. 시간의 한계 4. 그렇게 하게함(사동) 5. 명령, 권유 (-도록 하다) 6. 명령	• ‘-도록’을 문장 주어의 상황적 의도성을 담은 문법이라 정의 • ‘-ㄴ 정도로’, ‘-ㄴ 때까지’와 같이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장 눈의 띄는 차이는 ‘-도록’에 대한 의미 분류이다. ‘-도록’의 의미를 2가지에서 6가지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사전이 구체적이며 ‘-도록’을 활용할 사용자 입장에서 의미를 나누고 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에서는 흔히 정의하는 ‘목적’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데, ‘-도록’이 어느 지점에 다다른 도달의 의미로 ‘목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의미 분류가 간결하고 쉬운 표현으로 대체되어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마·조사 사전』의 경우 의미 분류가 상세히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같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사전이지만 문법 설명에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문법을 간결하게 설명하여 학습자가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과 문법에 대한 상세한 의미 제시를 통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도록 하다’의 의미 차이이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의 경우 ‘-도록 하다’가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며 ‘하다’가 생략되어 종결어미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에서는 ‘-도록 하다’는 주어 의지 강조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마·조사 사전』에서도 ‘-도록 하다’가 명령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지만 권유의 의미도 가진다고 덧붙이며, ‘-도록’ 자체가 마지막에 쓰여 명령을 나타낸다고 하여 ‘-도록 하다’의 생략형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또한 ‘-도록 하다’가 사동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6) ㄱ. 날이 밝으면 떠나도록 해

ㄴ. 이번 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ㄷ. 몸이 안 좋으면 좀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해요.

ㄹ. 그는 부인이 저녁을 빨리 하도록 했다.

(6)은 각각 앞에서 언급한 ‘-도록 하다’의 명령, 주어의 의지 강조, 권유, 사동의 의미 예시이다. 어떤 예시를 보느냐에 따라 ‘-도록 하다’의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명령’이라는 의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록’에 한해서는 명령과 사동의 의미가 결국

같다고 볼 수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덜 단호한 권유에 가까운 명령이기 때문에 권유의 의미 또한 같은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록’에 대한 의미 분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 하나의 예시에 대한 정의된 용어의 차이일 뿐 같은 용례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고 본다.

2.1.3 문법 연구 자료

1) 국어문법

첫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고영근·남기심 저자의 『표준국어문법론』(2007)이다. 『표준국어문법론』은 우리말의 형태구조와 통사구조 전반을 풀어쓴 책이기 때문에 국어문법에 대한 전체적 체계를 보기 위한 자료로 적합하다. 문법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도록’에 대한 언급은 적지만, 국어문법에서의 ‘-도록’이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7) 어떤 행위가 어떤 정도까지 이름을 보이는 것 : -도록

먼저 ‘-도록’은 문장의 짜임새 중 이어진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에서 ‘연결어미’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연결어미의 쓰임을 기술하면서 ‘-도록’은 “어떤 행위가 어떤 정도까지 이름을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목적’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표준국어문법론』에서는 연결어미를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도록’이 외에 “목적에 나타내는 것, 의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된 연결어미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도록’의 정의는 단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7)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행위가’라고 한 것으로 보아 동작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있으며 ‘어떤 정도까지’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정도, 한계, 끝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름을 보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도록’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의 정도, 한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국어문법에서는 ‘-도록’이 전반적으로 연결어미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지만 연결어미 외에 다른 분류를 한 문법서 2권을 더 참고하도록 한다. 김진수 저자의 『국어접속조사와 어미 연구』(1994)를 통해 ‘-도록’의 범주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8) ㄱ. 내포문어미: -에, -게(끔), -어야, -고, -고도, -도록 …(생략)

ㄴ. 접속문어미: -고, -고서, -는데, -(으)면 …(중략)… -도록, -다가 …(생략)

『국어접속조사와 어미 연구』의 경우 ‘-도록’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서술은 안 되어 있으며, ‘-도록’의 어미 분류 범주만 기술되어 있다. 국어문법의 경우 대체로 ‘-도록’은 ‘목적’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라고 본다. 하지만 『국어접속조사와 어미 연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록’이 내포문어미와 접속문어미라고 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김혜성(1993)에서도 ‘-도록’이 쓰인 문장은 상위문과 하위문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는데, 이 또한 문장과 문장이 ‘-도록’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 어미 ‘-도록’이 결합된 문장이 상위문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그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따뜻한 우유를 건넸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도록’은 “그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이라고 내포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도록’을 사용함으로써 생략 가능한 부사절을 구성할 수 있으며 문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부가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꼭 알아야 하는 한국어 문법』(2016)에서도 ‘-도록’은 내포문어미로 보고 있지만 『국어접속조사와 어미 연구』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9) 철수는 (밤이 새도록)AVP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9)와 같이 ‘-도록’은 부사절을 만들기 때문에 부사형 전성어미로 분석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부사구는 문장 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운데, “밤이 새도록”도 “밤이

새도록, 철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와 같이 이동이 자유로우며, “주절의 서술어의 행위에 대한 방식을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록’이 ‘부사형 전성어미’에서 언급되었으니 ‘연결어미’가 아니라고 볼 순 없지만 ‘-도록’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살펴보았을 때 ‘-도록’에 관한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집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편)』을 살펴보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편)』은 한국어를 배우거나 가르칠 때 필요한 한국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어교육용 문법서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이 책에서는 ‘-도록’을 ‘목적’을 표현하는 연결어미로 설명하고 있으며 결합 제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편)』에서의 ‘목적’은 “앞 문장이 주어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고 뒤 문장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될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어의 목적이나 목표가 된다는 것을 통해 ‘주어의 의도, 의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한 결합제약으로는 시제 제약,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문장 종류 제약, 부정문 제약이 있다.

(10) ㄱ.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았/었/였’과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함께 쓸 수 없다.

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같지 않아도 되며, 사물이 주어가 될 수 없다.

ㄷ. 목적의 ‘-도록’은 형용사나 -(이)다와 함께 쓰일 수 없다.

ㄹ. 부정 표현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결합 제약 중 (10ㄷ)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앞의 문헌들과 다르게 ‘-도록’이 동사하고만 어울린다고 기술되어 있다. 덧붙여 형용사하고 결합될 경우는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어 ‘목적’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록’에는 목적과 시간의 한계 두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결합하는 품사에 따라 ‘-도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앞의 국어문법과 다르게 한국어교육용 문법에서 ‘-도록’에 대한 의미 분류가 간결해지고 결합 제약이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2006)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의 뜻과 쓰임을 연구한 책으로 사전과 문법서 그리고 일부 저서들에서 다루어진 조사들을 참고하여 보다 실용적인 면에서 살펴본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것과 입말에선 쓰이지 않지만 문예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일부 예스러운 것들만을 위주로 엮었다. 뜻풀이에서는 서술보다 예문을 많이 들어, 이민족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즉 이민족을 위한 한국어 학습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서라고 구분하였다.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에서는 ‘-도록’을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범주를 정의하였으며 그 중 ‘방식,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도록’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방식, 정도의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짐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도록’의 제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ㄱ. 앞의 행동은 뒤 행동이 이를 수 있는 정도나 기준을 나타낸다.

‘게’의 뜻을 힘주어 나타내며 목적성이 현저히 나타난다.

☞ 그는 매일 해가 저물도록 밭에서 일하곤 하였다.

송희는 날마다 밤이 깊도록 공부를 한다.

신이 다 닳도록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ㄴ. 의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향이나 목적을 나타낸다.

☞ 오작품이 나지 않도록 제품의 질에 주의하여야 한다.

곡식이 잘 자라나도록 덧거름을 주었다.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체조를 하고 있다.

제 잘못을 뉘우치도록 잘 타일러 주세요.

ㄷ. ‘(어찌) 하도록 하다’의 형식으로 사역의 뜻을 나타낸다.

예 너희들은 학습에서 신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은 오늘로 떠나도록 해요.

점심에는 산나물 채를 먹도록 해요.

ㄹ. 시간의 한계 즉 어떤 일정한 때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을 나타낸다.

예 그 애는 요새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한다.

그들은 해가 지도록 밭에서 일하였다.

그는 벌써 한 달이 넘도록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ㄱ.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그리 하도록 하게 함을 나타낸다.

예 그녀가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타일러라.

오늘 밤 나를 여기서 묵도록 하여 주세요.

날이 저물어지자 그는 일이 빨리 끝나도록 다그쳤다.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에서는 목적성이 드러나는 정도나 기준, 방향이나 목적, 사역, 시간의 한계, 명령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의미는 앞의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과 유사하다. 다만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조사 사전』에서는 ‘-도록 하다’의 문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에서는 ‘-게’와의 대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11ㄱ)를 통해 정도나 기준을 나타내는 ‘-도록’은 ‘-게’보다는 힘주어 나타낸다고 보고 있으며, [참조] 부분을 통해 ‘-도록’은 일정한 정도에 이르는 한계를 뜻하고, ‘-게’는 단지 이르는 정도의 뜻만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찌 하도록 하다, 어떤 일정한 때에 이르기까지, 그리 하도록 하게 함”과 같이 그 의미를 최대한 풀어쓰려고 함을 볼 수 있다. (11ㄱ)의 경우 (11ㄷ)와 설명이 유사하여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11ㄱ)은 명령이며, (11ㄷ)는 사역의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역(사동)과 명령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문법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종록(2008) 저자의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 문법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법서이다. 여기서 기술한 ‘-도록’을 다시 재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2) ㄱ. 동사 + -도록 = ‘의도적 결과’

뒷 절의 행위가 일어난 것이 앞 절의 내용과 같은 결과가 오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그가 사업을 잘 하도록, 영수는 그를 도와주었다.

ㄴ. 형용사 + -도록 = ‘정도적 결과’

뒷 절의 행위를 하되 앞 절의 정도까지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영수는 그녀를 밍도록 사랑했다.

ㄷ. ‘시간 경과’적 결과의 의미

주로 동사와 결합되어 쓰인다. ‘시간경과’는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뒷 절의 행위가 일어난 것은 앞 절의 내용과 같은 결과가 오기까지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앞 절의 결과 내용이 항상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

예 1년이 다 가도록 영수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에 따르면 ‘-도록’은 ‘결과’의 의미를 가지며 결합하는 품사에 따라 ‘의도적 결과’와 ‘정도적 결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간혹 ‘시간경과’적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12ㄷ)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견해가 특이한 점은 ‘-도록’의 의미를 크게 ‘결과’로 보고 그 결과가 의도적, 정도적으로 나누어져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나누던 분류와는 다른 분류인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법서에서 나타나는 ‘-도록’의 문법 범주와 의미 정보, 참고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문법서 또한 자료마다 의미 분류와 서술이 다르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3〉 문법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는 ‘-도록’의 의미

문법 연구 자료	의미 분류	특징
『표준국어문법론』	어떤 행위가 어떤 정도까지 이름을 보이는 것	• ‘-도록’에 관한 설명이 적다.
『국어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내포문과 접속문을 구성하는 어미 중 일부 (내포문어미, 접속문어미)	•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 외에 상위문과 하위문이 있는 내포문을 구성한다고 서술하였다.
『꼭 알아야 하는 한국어 문법』	부사형 전성어미	•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가능한 점을 언급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체계편)』	1. 목적 (동사 + -도록) 2. 시간의 한계 (형용사 + -도록)	• 결합하는 품사에 따라 의미를 나누었다. • ‘정도’의 의미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1. 정도, 기준 2. 방향 목적 3. 사역 4. 시간의 한계 5. 권유 명령	• 정도나 기준이 ‘-게’보다 강하다고 하였다. • ‘되도록’은 부사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표준한국어 문법』	1. 의도적 결과 2. 정도적 결과 3. 시간 경과적 결과	• ‘-도록’의 의미를 ‘결과’ 하나로 정의하였다.

전반적으로 국어문법에서는 ‘-도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서술한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다. ‘-도록’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법서의 특성상 우리말의 구조를 문장, 단어, 품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세부 문법에 대해 그 의미와 쓰임을 서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어문법서는 문법 항목에 대한 범주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의미는 다른 어미들과 함께 묶어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만 주목할 점은 그 문법 범주에 대한 제시도 ‘연결어미, 내포문어미, 접속문어미, 부사형 전성어미’와 같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서의 경우 ‘-도록’의 의미가 1가지에서 5가지로 다양하게 드러났으며 명령의 의미는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에서만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게’와의 비교 서술이 잦았으며 사전과는 다르게 결합 제약

을 제시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2.2. 한국어교육용 ‘-도록’의 의미 분류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사전과 문법서를 바탕으로 ‘-도록’이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정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한국어 교재에서 어디까지의 문법적 의미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위에 제시한 ‘-도록’의 의미 분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4〉 사전과 문법서에서의 ‘-도록’의 의미 분류

문헌자료 \ ‘-도록’의 의미	목적	결과	방향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	사동	방식	도달	권유	기준	의도	의지 강조
『표준국어대사전』	○	○		○		○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	○	○	○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		○				○
『어미·조사 사전』	○		○	○	○	○	○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												○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		○	○	○	○	○				○	○	
『외국인을 위한 표준한국어 문법』	○	○			○							○	

국어문법서의 경우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앞선 연구에서 언급된 ‘-도록’의 의미는 총 13가지이다. 이 중 ‘-도록’이 ‘목적’의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한 자료의 수를 통해 ‘목적’의 의미는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7권의 자료에서 4권 이상 언급된 의미로는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

이 있다. 즉 1차적으로 빈도를 통해 ‘-도록’의 의미를 거르자면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4개의 의미 외의 의미들을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의 의미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보도록 한다.

대체로 ‘결과’는 ‘어떠한 목적에 수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에 포함시킨다. 또한 ‘방식, 방향’도 주어의 목적을 가진 어떠한 행위, 의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에 포함시켰다. ‘의도, 주어의 의지 강조’는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록’이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분류하고자 ‘의도, 주어의 의지 강조’라는 의미 분류를 새롭게 하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에는 ‘결과, 방식, 의도, 의지 강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정도’는 진행 과정 중의 어떠한 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도’의 의미에는 ‘기준, 도달’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간의 한계’의 경우 비교적 그 의미 서술이 뚜렷하여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시간’은 진행상의 있는 속성상 ‘정도’의 의미에 가깝다. 그렇지만 ‘정도’와 함께 묶지 않은 이유는 ‘정도’는 “어떠한 행동이 이를 수 있는 정도”라는 뜻으로 보았고 ‘시간의 한계’는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의 어떠한 지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행동과 시간이라는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기준이 있으며, ‘정도’의 의미를 교육할 때 단지 행동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기준으로도 어떠한 지점, 한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도’와 ‘시간의 한계’를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명령’은 ‘-도록 하다’와 같은 형태로 쓰일 때 ‘명령’의 의미를 가지며 단지 ‘-도록’만으로는 ‘권유’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사동’은 앞서 김혜성(1993)의 연구에서처럼 명령형, 청유형과 같은 문체에 따라 사동의 대상이 달라져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며, 명령의 의미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이를 교육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로 ‘-도록’에 대한 의미를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으로 추려내었다. 기존의 ‘-도록’에 관한 의미는 ‘도급, 정도, 목적’이었으나 도급과 정도의 의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명령, 권유의 의미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의 구분은 ‘-도록’에 대해 교육하기에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기에 어떠한 의미와 문형으로 분류하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된 의미를 문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도록’이 동사와 결합할 경우 “사동, 명령, 정도, 결과, 시간의 한계, 목적, 의도적 결과”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 “정도적 결과, 시간의 한계”의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 구분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의미는 “목적, 방향, 결과, 방식, 정도”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형용사와 결합하는 ‘-도록’의 문형은 극히 일부 제시되기 때문에 “A+ -도록”의 문형을 제시하기에는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도록’은 동사하고만 결합한다고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록 하다’의 문형은 앞서 사전식 의미 분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권유 수준의 명령과 다른 사람이 무언가 하게끔 하는 사동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크게 명령이라고 본다. 또한 주어의 의지 강조 의미는 ‘-도록 하다’의 의미가 아닌 ‘-도록’ 자체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예를 다시 보면 “이번 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도록’은 주어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방식,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록’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교육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도록 하다’의 명령과 목적의 의미 차이는 ‘-도록’에 후행하는 용언과 결합하는 선어말어미 ‘-겠-’에 달려있다. 앞서 주어의 의지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면, ‘-도록 하겠다’의 문형의 예를 들고 있다. 이는 ‘-겠-’이 가지고 있는 주체 의지 표현으로 인해 ‘주어의 의지 강조’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된 것이지 ‘-도록’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록 하다’는 주어가 1인칭일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제부터 적금을 하도록 할 것이다.”와 같이 주어가 1인칭일 경우 주어의 의도나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앞으로 늦지 않도록 하세요. 약은 식후 복용하도록 하세요.”와 같이 1인칭 이 외의 대상이 주어로 올 경우에는 ‘-도록 하다’가 명령, 권유,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록 하다’는 ‘-도록 하다’의 문형만으로는 의미를 규정짓기 애매하며 ‘-겠-’과 같이 ‘하다’가 어떤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문형과 그 의미를 규정짓기 때문에 ‘-도록’ 자체에 대한 의미라고 규정짓기에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록’의 의미 제시에서 ‘-도록 하다’ 문형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어교육용 어미 ‘-도록’의 의미는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 4개로 분류되며, 동사하고 결합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설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도록 하다’는 권유와 같은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현재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5종을 분석하여 ‘-도록’이 어떻게 제시되고 교육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Ⅲ. 한국어 교재에서의 ‘-도록’ 제시 현황

이 장에서는 현재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에서 ‘-도록’이 몇 급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아 한국어교육에서의 ‘-도록’은 어떤 의미 분류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앞서 ‘-도록’은 그 의미 분류가 13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의미 설명에 있어서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러한 의미 분류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 설명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교재 분석 방법

이지영(2004)에서는 교재를 구성과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 각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를 서종학 외(2007) 『한국어 교재론』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지영(2004)에서는 교재 내용 분석을 다섯 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13)과 같다.

(13) 교재 내용 분석

- ㄱ. 주제 분석: 교재에서 다루는 주제가 학습자의 흥미, 주제의 전문성, 주제의 다양성, 주제의 실제성 등의 측면에서 어떤 특징

이 있는지 분석

- ㄴ. 언어 분석: 발음과 억양, 어휘, 문법 및 문형, 담화와 화용
- ㄷ. 기능 분석: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ㄹ. 과제 및 활용: 수업에서 소개하기, 이웃사람과 인사하기, 하루 일과 묻고 대답하기, 물건의 위치 정해서 말하기, 가족 소개하기, 여가 생활 묻고 말하기, 숙소 비교 후 결정하기
- ㅁ. 문화 분석: 문화의 종류와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 등을 각 교재별로 단계별로 고찰, 초급·중급·고급 등 교재의 수준에 따라 소개된 문화의 종류와 소개 정도, 소개 방법 등을 분석

구체적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 구현을 위한 교재 분석 틀을 제시한 이해영(2001)을 보면, 교재 내적 구성에서 학습 내용 분석을 주제, 언어 내용, 문화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그 중 언어 내용에는 문법, 어휘, 발음과 억양, 담화와 화용이 있는데, 문법 부분의 평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4) 문법

- ㄱ. 새로운 언어 항목의 제시 및 연습을 위해 어떤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것이 학습자에게 적합한가?
- ㄴ.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 ㄷ. 제시된 문법은 학습자의 숙달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가?
- ㄹ.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이 다루어졌는가?
- ㅁ.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는가?
- ㅂ. 새로 나온 문법 항목은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 ㅅ. 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은 4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었고,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는가?
- ㅇ. 문법을 위한 참고 부분이 있어 자습, 개별 학습 등에 적합한가?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단원의 주제, 기능, 과제 및 활용

을 살펴보고, ‘-도록’의 학습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3)과 (14)의 기준을 참고한 본고의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5) ㄱ. 교재 주제 분석 : 문법 항목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가?

ㄴ. 과제 및 활용 : 소개하기, 인사하기, 대답하기, 결정하기 등의 과제가 명확하고 문법 항목과 잘 어울려 있는가?

ㄷ. 새로운 언어 항목의 제시 및 연습을 위해 어떤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것이 학습자에게 적합한가?

ㄹ. 제시된 문법은 학습자의 숙달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가?

ㅁ.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이 다루어졌는가?

ㅂ.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는가?

ㅅ. 새로 나온 문법 항목은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ㅇ. 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은 4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었고,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는가?

교재 분석의 순서는 ‘-도록’이 실현되는 모든 급, 단원, 단원명, 과제 및 활용을 정리하고, ‘-도록’의 정의와 제시를 통해 ‘-도록’의 의미를 어떻게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3.2 분석 대상 교재 목록

어미 ‘-도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대상 교재는 현재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출판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한국어 교재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경민(2014)에 따르면 한국어 교재에서의 ‘통합’은 ‘언어 기능간의 통합 교수 방법’, ‘영역 간의 통합 교수 방법’, ‘현실과 교실 상황과의 통합 교수 방법’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본 고에서 말하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통합은 ‘영역 간의 통합 교수 방법’을 말하며 이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

기, 쓰기’ 언어 기능에서 문법을 추가한 5가지 영역으로 정의한다. 또한 고경민(2014)에서는 혼합교재와 통합교재의 차이점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혼합교재는 말하기와 읽기, 쓰기, 듣기를 한 단원에 구성하되 통합의 목적 없이 제시하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지만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재이며, 통합 교재는 두 가지 기능 이상을 한 단원에 통합해서 제시하고, 서로 간의 통합이나 영역과의 통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교재를 말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재들을 조사해본 결과 한국어 학습 관련 교재를 출판한 29곳의 대학 중 일반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출판한 대학은 14곳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통합 교재’라고 부를만한 교재는 많지 않았다.⁷⁾ 또한 최근 개편되면서 ‘-도록’의 제시가 삭제된 교재⁸⁾가 있거나 의미 설명 부분이나 연습이 드러나지 않는 교재를 제외하여 목록을 추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7) TOPIK이나 회화, 문법서를 포함한 한국어 학습 관련 교재를 출판한 대학은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이며 총 29곳에 해당한다. 그 중 일반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출판한 대학은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로 14곳에 해당한다.

8) 서강대학교에서 출판한 『서강 한국어』에서는 2009년에 출간한 교재만하더라도 4급에서 두 번으로 나누어 ‘-도록 하세요’와 ‘-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 않도록’이 정도,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어 교재 제시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었지만, 최근 2016년에 4급 책이 완전히 개정되면서 ‘-도록’에 대한 제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다른 급의 교재 개정이 끝나지 않아 ‘-도록’이 어디에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4급에서 두 번 제시되던 표현이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표 5〉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 분석 대상 목록

대학명	교재명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3』 (2010) 『재미있는 한국어 3 workbook』 (2010) 『재미있는 한국어 6』 (2011) 『재미있는 한국어 6 workbook』 (2011)
서울대학교	『서울대한국어 3B』 (2016) 『서울대한국어 3B workbook』 (2016)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3-2』 (2015) 『연세한국어 3-2 활용연습』 (2015) 『연세한국어 4-1』 (2016) 『연세한국어 4-1 활용연습』 (2015) 『연세한국어 4-2』 (2016) 『연세한국어 4-2 활용연습』 (201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 2-1』 (2015) 『이화한국어 2-1 workbook』 (2016) 『이화한국어 2-1 참고서』 (2015) 『이화한국어 4』 (2016) 『이화한국어 4 workbook』 (2015) 『이화한국어 4 참고서』 (201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workbook』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5』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5 workbook』 (2016)

3.3 분석 결과

3.3.1 고려대학교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는 고려대학교에서 출판하였으며,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 한국어 교재이다. 『재미있는 한국

어』에서는 ‘-도록’이 3급과 6급에서 2회 제시되었는데, ‘-도록’을 6급의 맨 마지막 단원에서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 『재미있는 한국어 3』

〈표 6〉 『재미있는 한국어』 3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재미있는 한국어』	급	3급	단원명	10과 선물
문형	-도록 하다	의미 분류	요구, 제안, 의지 표현	과제	비교하기
정의	-도록 하다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used in command, suggestion, volition expressing the intended meanings indirectly.				
제시	(1) 가: 영수 씨 집들이 선물로 뭘 사면 좋을까요? 나: 세제랑 비누를 사도록 하죠. (2) 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3) 가: 내일은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나: 가능하면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4) 가: 친구 결혼식 때 어떤 선물을 사는 게 좋을까요? 나: _____.				

『재미있는 한국어 3』에서는 ‘-도록’ 보다 ‘-도록 하다’의 표현이 먼저 제시되었다. 또한 그 의미로는 ‘요구, 제안, 의도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사와 결합된다는 결합 정보를 명시하였으며, 단원은 선물과 관련된 문화 차이를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3급까지는 문법 설명을 영어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한국어 3』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의 단원은 “도입-대화와 이야기-말하기 연습-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와 이야기”에서 ‘-도록’은 대화문과 짧은 글에서 드러나며, 각각 “그럼 우리도 제인 씨에게 휴지하고 비누를 선물하

도록 해요.”와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나 취향을 잘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와 같은 예시로 ‘제안’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말하기 연습”은 단순 교체 연습과 유의미적 연습으로 진행되는 10개의 연습 문항이 있다. 그 중 ‘-도록’과 관련된 연습은 한 문제 제시되었다. 말하기 연습 또한 ‘제안’의 의미를 연습하고 있다. 다음으로 ‘듣기’에선 ‘-도록’이 한 번 언급되었으며 기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역에서는 문법에 대한 활용이나 제시는 드러나지 않았다.

2) 『재미있는 한국어 6』

〈표 7〉 『재미있는 한국어』 6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재미있는 한국어』	급	6급	단원명	10과 세계의 문화유산
문형	-도록	의미 분류	정도	과제	소개하기
정의	동사 뒤에 붙어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정도로’라는 의미로, 주로 느낌을 과장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				
제시	(1) 가: 이곳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 저는 이곳을 개발하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유산을 보전하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요? (2) 가: 죽도록 그 사람을 사랑했건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다니……. 나: 너무 상심하지 마.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겠지만 좀 있으면 이름조차 생각 안 날 거니까.				

『재미있는 한국어 6』에서는 ‘-도록’이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의 경우 고급으로 갈수록 문법 제시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에 위와 같은 정의와 제시만 교재에 있을 뿐 언어 영역과의 연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Workbook 또한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표현하는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을 뿐 문법에 대한 연습은 빈칸 채우기 활동만 제시되어 있었다. Workbook의 문법 연습을 보면, “귀에 못이 박히다, 눈물겹다, 목젢이 보이다, 숨

이 탁 트이다, 입이 떡 벌어지다”와 같은 어휘를 제시하고 ‘-도록’을 사용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이 제시되어 있었다. 『재미있는 한국어 6』에서는 ‘정도’의 의미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설명한 것처럼 보이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익히 정의되어진 ‘목적’이라는 의미 설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재미있는 한국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급에서 ‘-도록 하다’가 언급된 이후 ‘-도록 하다’가 아닌 ‘-도록’의 사용이 4·5·6급에 걸쳐 교재 속에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의미가 ‘제안, 의지 표현,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도 있어 ‘-도록’에 관한 설명 제시 부분에서 아쉬움이 보인다.

3.3.2 서울대학교 교재

『서울대 한국어』는 한국어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정규 과정용(약 200시간) 한국어 교재이다. 이 책은 성인 학습자들이 대화 주제와 기능에 대한 언어 구성 능력과 사용 능력을 익혀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서울대 한국어』는 3급에서만 ‘-도록’이 제시되고 있으며, 문법 설명이 단원 내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부록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어 부록에서의 ‘-도록’의 정의와 제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8〉 『서울대 한국어』 3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서울대 한국어』	급	3급	단원명	13과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이 잘 어울려요.
문형	V-도록	의미 분류	목적, 이유 시간의 한계	과제	행사 계획하기
정의	뒤에 오는 행동의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쓴다. Used when expressing a purpose or reason for the following action.				
부록 제시	• 주로 동사와 결합한다.				
		받침 X		받침 O	
	동사	지나가다 → 지나가도록		읽다 → 읽도록	
예) 구급차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 주세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써 주세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책을 읽도록 텔레비전을 꺼 주세요. 고장이 나지 않도록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짹 잡아 주세요. • ‘-도록’을 ‘-게’로 바꿔 써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 ‘-게’ can be substituted for ‘-도록’ without much difference in meaning. •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면 ‘그 시간이 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When used with time expressions, ‘-도록’ is close in meaning to ‘-까지’
단원 내 제시	1. 대화문 A 이번 행사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 B 네,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문 • 잘 들리도록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유리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3. 연습 다음과 같이 광고를 만들어 보세요. 행복 백화점 • 아이들을 맡기고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방을 마련했습니다. 1) 식당 2) 쇼핑몰 3) 노래방 4) 찜질방 5) ?

『서울대 한국어』의 경우 각 단원이 “어휘-문법과 표현-말하기-듣고 말하기-읽고 쓰기-과제-문화-발음-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을 통해 활동지, 문법 해설, 듣기 지문 등이 따로 정리되어 있다. 문법 해설이 따로 정리되어 있어 문법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었다. 문형을 “V-도록”과 같이 동사와 결합함을 명

시적으로 제시하였고,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합 정보도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게’와의 대체 가능성과 ‘시간의 한계’ 의미도 짧게 제시하며 ‘-까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단원 내에서는 ‘-도록’에 대한 대화문, 예문, 연습만을 제시하였고 문법 연습은 Workbook에서 진행되었다. Workbook에서의 연습은 총 4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타 한국어 교재들에 비해 연습의 문항이 많고 그 제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습은 연결하기-대체하기-문장 완결하기 순으로, 통제적 연습에서 덜 통제적인 연습으로 제시되었다.

본 단원 내에서의 ‘-도록’의 연계로는 한 단원에 4개의 문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말하기와 듣기, 쓰기에서의 ‘-도록’ 제시는 적절히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읽기’에서는 읽기 자료에서 ‘-도록’이 두 번 드러나는데,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도록’을 여러 번 제시하기 위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읽기 자료는 “초대의 글”이며 ‘-도록’이 쓰인 문장을 “...채식 뷔페를 즐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물 사진을 전시해서 구경하면서 바자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구성하여 ‘-수 있도록’의 문형으로 두 번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울대 한국어』는 본 단원의 구성에서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에 기초하여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부록과 Workbook을 통해 문법의 제시와 연습을 비교적 꼼꼼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교재에서 말하는 문법 학습 과정을 보면 부록에서 문법에 대해 학습하고 앞의 본 단원으로 돌아와 예시 대화와 예문을 통해 목표 문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형태 변화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Workbook으로 가서 문법 연습을 진행한 후 다시 본 단원으로 돌아와 마지막 유의미한 연습을 진행해야 한다.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의도는 보였으나 문법 학습이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3.3.3 연세대학교 교재

『연세한국어』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교포와 외국인을 위한 책으로 필수 어휘와 문법, 문화와 사고방식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내용은 총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단원에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제시된다. 또한 한 주제에 두 개의 문법을 배우게 되어 『연세한국어』는 제시된 문법의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세한국어』에서는 ‘-도록’을 세 개의 의미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 『연세한국어 3-2』

〈표 9〉 『연세 한국어』 3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연세한국어』	급	3급	단원명	8과 학교 생활
문형	V-도록 하다	의미 분류	권유, 명령, 주어의 의지 강조	과제	조언하기, 의논하기
정의	It is used to recommend or order an action to the conversation partner. It is attached to an action verb stem. It is also used to emphasize the speaker's will				
제시	• 충분히 쉬도록 하십시오. Make sure that you rest well. • 옷을 따뜻하게 입도록 해라. Make sure that you wear warm enough • 나중에 만나도록 합시다. Let's make sure to meet later. • 내일 늦지 않도록 합시다. Let's make sure not to be late tomorrow. • 내일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try to come early tomorrow. • 오늘 저녁까지 이 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to finish this work by tonight.				

『연세한국어 3』에서는 학교생활을 주제로 ‘-도록 하다’의 ‘권유, 명령, 주어의 의지 강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주어의 의지 강조’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교재는 『연세한국어』가 유일하며, 『연세한국어 3』은 ‘-도록’보다 ‘-도록 하다’를 먼저 제시하였다. 『연세한국어』는 의사소통적 과제와 어휘, 문법에 초점을 두고 교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과제, 어휘, 문법 위주 제시와 간단한 듣기 연습이 제시되어 있는 구성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문법 연습뿐만 아니라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연습이 모두 Workbook에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네 가

지 언어 영역의 연습은 한 주제의 어휘 문법을 연습한 뒤 한 단원의 마무리로 8개의 문법을 섞어서 연습하는 구성이다. 이로 인해 ‘-도록 하다’은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말하기·쓰기 연습에서 “배운 문법을 사용해 친구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십시오.”라는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Workbook의 문법 연습은 대화문 완성하기 두 문항만 제시되어 본 교재와 Workbook 어디에서도 통제적 연습의 제시는 보이지 않았다.

즉 『연세한국어 3』에서는 의사소통적 과제 위주의 교재 구성으로 문법 설명과 연습이 부족하고, 제시한 ‘권유, 명령, 주어의 의지 강조’의 의미가 예문이나 연습에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 아쉽다.

2) 『연세한국어 4-1』

〈표 10〉 『연세 한국어』 4급(1과)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연세한국어』	급	4급	단원명	1과 나의 생활
문형	-도록 ¹	의미 분류	목적, 이유	과제	계획하기, 의견말하기
정의	앞에 나오는 행위가 목적이나 이유가 되어 뒤의 결과가 나오게 말할 때 쓴다.				
제시	• 음식은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는 게 좋겠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필요할 때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 놓아야 한다. • 모든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종이 한 장에 정리해 놓는 게 좋겠다. •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많이 세워야 한다.				

『연세한국어』는 ‘-도록’을 3회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데 ‘-도록 하다’와 -도록¹, -도록²이다. 두 번에 걸쳐 제시될 ‘-도록’의 첫 번째 의미는 ‘목적’의 의미이다. ‘-도록’의 많은 의미 중에서 ‘목적’은 가장 기본 의미이기 때문에 따로 또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원의 과제는 “시간 관리 계획하기”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 방안을 ‘-도록’을 사용해서 말하는 연습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내일 발표를 해야 하는데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다.” 라고 문장을 제시하고 이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도록’을 사용하여 말하는 연습이다.

이처럼 대체로 조언하기 과제로 ‘-도록’을 연습하며, Workbook에서는 짧은 대화문에서 ‘-도록’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한국어 4』 역시 언어 영역과의 연계가 떨어지며 통제적 연습이 제시되지 않았다.

3) 『연세한국어 4-2』

〈표 11〉 『연세 한국어』 4급(9과)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연세한국어』	급	4급	단원명	9과 명절과 축제
문형	-도록 ²	의미 분류	동작의 정도나 한계, 도달	과제	글 읽고 정리하기
정의	동작의 정도나 한계, 어느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를 나타낼 때 쓰며 ‘-었/-았/-였’이나 ‘-겠’과 같이 쓰지 않는다.				
제시	• 두 사람은 죽도록 사랑했어요. • 그 친구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 그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어서 이젠 정말 듣기 싫어요. • 아이가 12시가 다 되도록 안 들어와요. • 친구와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연세한국어 4』의 9과에서는 ‘-도록’의 정도나 한계, 도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는 ‘명절과 축제’이며 ‘축제에 대한 글을 읽고 정리하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한국어 4』의 9과의 특징은 ‘-었/-았/-였’이나 ‘-겠’과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결합 제약을 제시한 점이다. ‘-었/-았/-였’이나 ‘-겠’의 결합 제약은 ‘정도나 한계, 도달’의 의미에서만 결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록’과는 결합이 안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약 설명은 ‘-도록’의 맨 처음 제시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세한국어 4』의 9과의 경우 문법 연습이 앞의 제시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도록’ 관련 표현에 뒷 문장에 들어

갈 어휘를 선택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하는 연습이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눈이 빠지도록”이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여러 어휘 카드 중에 “기다리다”를 골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는 표현을 익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선 긋기 연습을 통해 반복 학습할 수 있다. 즉 정도, 한계의 의미를 가진 ‘-도록’과 함께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 연결하며 관용적으로 굳어진 ‘-도록’의 표현을 익히는 연습이 제시되었다.

‘명령, 목적, 정도’의 의미를 한 단원에서 설명하기엔 학습자에게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지만,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과제를 수행하기 용이하게 ‘-도록’이 잘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 교재이기에 문법의 제시나 연습 구성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3.4 이화여자대학교 교재

『이화 한국어』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면서도 무엇보다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도록 고안한 것이 특징이다. 담화 순서와 문장의 핵심어를 담은 말하기 연습은 외국인 학습자가 단순 암기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1) 『이화한국어 2-1』

〈표 12〉 『이화 한국어』 2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이화한국어』	급	2급	단원명	6과 건강
문형	A/V + 도록	의미 분류	목적, 행동에 대한 기준, 지시, 요청	과제	조언하기
정의	-도록 indicates the purpose or standard of the following action and is used to give directions or make requests. It may be used with certain adjectives. 피곤하지 않 + 도록 → 피곤하지 않도록 먹 + 도록 → 먹도록				
제시	준비합시다 친구에게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조언해 줄 때 어떻게 말할까요?				

(삽화)

A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요.

B 맞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더 입으세요.

연습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서 적당한 방법을 조언하려고 합니다. ‘-도록’을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상황	목적	해야 할 것
보기	독감에 걸렸다	독감이 빨리 낫다	약을 챙겨 먹다
①	밤에 잠을 못 자다	푹 잘 수 있다.	포도주를 한 잔 마시다
...	...	...	...

A 티엔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B 네, 독감에 걸렸어요.

A 그래요? 독감이 빨리 낫도록 약을 챙겨 드세요.

『이화한국어』는 ‘-도록’이 2급 초반에 제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건강’이라는 주제와 ‘조언하기’ 과제를 통해 ‘-도록’의 목적, 지시, 요청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 모두 결합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때의 형용사는 ‘있다, 없다’이다. 문법 제시의 구성은 ‘대화문-정의-말하기 연습’으로 되어 있으며, 연습은 통제적 말하기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 상황과 목적,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제시하여 ‘-도록’을 사용해 대화문을 완성하는 연습이다. 이를 통해 목적과 지시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 영역과의 연계성을 보면 『이화한국어』는 전형적인 의사소통 중심 교재이며 특히 말하기 영역의 향상을 목표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말하기 연습에서 ‘-도록’에 대한 연습이 조금 드러날 뿐 다른 영역에서는 ‘-도록’의 연습이 보이지 않는다. “읽고 써봅시다”의 부분에서는 건강 수치에 대해 읽고 써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록’이 들어간 문장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과제이다. Workbook에서는 제시된 어휘를 골라 ‘-도록’을 결합하여 대화문에 적절히 연결하는 문제와, ‘-도록’과 함께 학습한 ‘-(으)려고’를 같이 제시하고 문장 내에서 적

절한 문법을 고르는 연습이 제시되었다.

이후 『이화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중심 교재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는지 『이화한국어 참고서』를 출판하였다. 본 교재에 제시된 기능별 연습들을 보충하기 위한 학습자용 책으로 문법, 어휘, 표현 등이 영어로 번역되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화한국어 참고서 2』에서 제시한 ‘-도록’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16) -도록 is used to indicate that the previous clause is a goal, criteria, or reason of the following clause. It is usually used to give advice or instruction. It is attached to an adjective or a verb, and whether the stem of the adjective or verb ends in a consonant or a vowel, it maintains the same form.

‘-도록’은 앞 절의 목적, 기준 또는 뒷 절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며 대부분 조언이나 지시할 때 쓴다고 하였다. 또한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도록’을 중급 문법임에도 초급에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별도의 연습 부분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언어 영역에서의 문법 활용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2) 『이화한국어 4』

〈표 13〉 『이화 한국어』 4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이화한국어』	급	4급	단원명	8과 결혼
문형	V +도록	의미 분류	행위의 방식, 정도, 시간의 한계, 상황 강조	과제	비평하기, 토의하기
정의	‘V +도록’은 뒤에 나오는 행위의 방식, 정도, 시간의 한계 등을 나타낸다.				
제시	준비함시다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삽화)

A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B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습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유를 ‘-도록’을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눈이 빠지다 / 목이 터지다 / 입에 침이 마르다 / 손이 발이 되다 / 귀에 못이 박히다

	현재 상황	이유
보기	목이 많이 쉬었다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응원했다.
①	기운이 없고 우울해 보인다	여자 친구에게 큰 실수를 해서 며칠 동안 빌었는데 사과를 받아주지 않다

A 왜 그렇게 목이 많이 쉬었어요?

B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목이 터지도록 응원했거든요.

『이화한국어』에서는 ‘-도록’이 두 번 제시된다. 두 번째 제시된 ‘-도록’은 행위의 방식, 정도, 시간의 한계, 상황 강조의 의미를 드러낸다. 단원 주제는 ‘결혼’이며 과제는 비평하기, 토의하기이다. ‘-도록’의 문형 제시로는 앞의 2급에서의 제시와 달리 동사와만 결합한다고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화문-정의-말하기 연습’ 구성에서의 연습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유를 ‘-도록’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으로, ‘-도록’과 결합할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어휘를 보면 “눈이 빠지다, 목이 터지다, 입에 침이 마르다”와 같이 앞서 『연세 한국어』에서 관용적 표현을 모아 제시한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이화한국어 4』 또한 2급과 마찬가지로 언어 영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Workbook에서의 연습도 제시된 어휘를 골라 ‘-도록’을 결합하여 대화문에 적절히 연결하는 연습만 구성되어 있다. 『이화한국어 참고서 4』의 경우 아래와 같

이 정의하였다.

(17) -도록 is used to emphasize a situation, way of behavior, or degree of behavior in the following clause. It is only attached to a verb in the present tense.

-도록 is used some exaggerated expressions so often that they have become idiomatic expressions as in the following example.

‘-도록’이 상황의 강조, 행동의 방식, 뒤에 오는 행위에 대한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덧붙여 표현의 강조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표현의 강조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며 든 예시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부르다.”이다. 또한 동사 중에서도 현재 동사와만 결합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화한국어』의 경우 초급에서 ‘-도록’이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중급에서 제시한 행위의 방식, 정도, 시간의 한계, 상황 강조의 의미를 2급에서 제시하고 2급의 목적, 행동에 대한 기준, 지시, 요청의 의미를 중급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 본다. ‘-도록’ 자체를 초급에서 학습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화한국어』 중급에서 구성한 ‘-도록’의 제시는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2급과 4급의 교육 내용을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도록’에 관한 학습의 부담을 덜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3.3.5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 교재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통합 수업용 교재이다. 이 책은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친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상호작용 연습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과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단원은 ‘도입’(도입그림과 학습목표), ‘말해봅시다’(본문 대화, 발음, 대화 연습, 새단어), ‘알아봅시다’(문법 설명) ‘연습합시다’(문법과 말하

기 연습), ‘듣고 말해봅시다’, ‘읽고 써봅시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단원에 따라 마지막에 학습자에게 필요한 기초 어휘 목록을 제공하여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표 1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급	4급	단원명	2과 일상생활
문형	AV-도록 하다	의미 분류	-도록: 정도, 목적, 기준. -도록 하다: 명령	과제	권유하기
정의	‘-도록’ is attached to action verbs, and indicates level, purpose. or standard. When you use ‘-도록 하다’, it means to order somebody to do				
제시	가: 이 약을 식사하시고 30분 후에 드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가: 저는 내일 몇 시까지 오면 돼요? 나: 회의가 10시에 시작하니까 9시 30분까지 오도록 하세요. 가: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낼 수 있어요? 나: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요한 물건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네. 알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에서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도록 하다’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 교재의 구성은 “말해 봅시다-알아 봅시다-들어 봅시다-읽어 봅시다-문화를 배워봅시다”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법은 “알아 봅시다”에서

제시된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 모두 결합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도록’도 함께 설명하였다. 그 의미 분류로 ‘-도록’은 정도, 목적, 기준을 의미하고 ‘-도록 하다’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 영역과의 연계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또한 문법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문법 연습 부분에서도 “당신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며 보기를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건강할 텐데”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도록’에 대한 문장을 생산해내기 어렵다. 또한 듣기, 읽기 영역에서도 ‘-도록’을 사용할 만한 과제나 질문이 주어지지 않아 ‘-도록’을 학습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Workbook에서는 기계적 연습과 대화문을 구성하는 연습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의 경우 문법을 바탕으로 언어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유의미적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다.

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5』

〈표 1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5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교재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급	5급	단원명	6과 인간과 과학
문형	V-도록	의미 분류	목적	과제	주장하기, 논거들기
정의	정의 설명 없음				
제시	V도록 예)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적당히 주었다. 하루 종일 목이 빠지도록 친구를 기다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5』는 인간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도록’의 ‘목적’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도록’이 동사하고만 결합한다고 하였으

며, 이와 관련한 과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주장하기와 논거 들기’로 설정되어 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5』에서는 ‘-도록’에 대한 언급이 간단히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전에 배운 ‘-도록’의 문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예시를 보면 ‘목적’의 의미가 아닌 ‘정도와 시간의 한계’ 의미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4급에서는 ‘-도록 하다’의 문형을 가르치며 ‘-도록’에 대해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갔으며 동사와 형용사 모두 결합가능 하다고 하였지만, 5급에서는 ‘-도록’ 중 목적의 의미만을 제시하고 동사하고만 결합한다고 제시한 점이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5』는 전문적이고 시사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부가적인 항목일 수밖에 없다. 해당 단원에서도 ‘주장하기, 논거들기’ 과제에 맞는 “-에 반대하는/찬성하는 입장이다. -아/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 따르면, -면에서 볼 때” 등의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교육 내용이다. 다만 Workbook에서 ‘-도록’에 대한 연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계적 연습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상황에 따른 대답을 만들어내는 유의미적 연습이 제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도록’ 제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금까지 현재 대학 출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도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제시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도록’은 제시되는 급수뿐만 아니라 문형, 의미 분류, 제시 순서 등 유독 다른 어미들에 비해 다양한 구성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6〉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에서 드러나는 ‘-도록’ 제시 분포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	급	단원	문형	‘-도록’ 의미 분류
『재미있는 한국어』	3급	10과	-도록 하다	요구, 제안, 의지 표현
	6급	10과	-도록	정도
『서울대 한국어』	3급	13과	V-도록	목적, 정도
『연세 한국어』	3급	8과	V-도록 하다	권유, 명령, 주어의 의지 강조
	4급	1과	-도록 ¹	목적, 이유
	4급	9과	-도록 ²	동작의 정도나 한계, 도달
『이화 한국어』	2급	6과	AV + 도록	목적, 행동에 대한 기준, 지시, 요청
	4급	8과	V + 도록	행위의 방식, 정도, 시간의 한계, 상황 강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급	2과	AV -도록 하다	-도록: 정도, 목적, 기준 -도록 하다: 명령
	5급	6과	V -도록	목적

〈표 16〉을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도록’이 제시된 급과 그 순서이다. 2급인 초급부터 6급인 고급까지 ‘-도록’은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체로 3·4급인 중급에서 ‘-도록’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 교재에서 1회 또는 2·3회에 걸쳐 ‘-도록’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의미 분류와 순서도 다양하다. ‘목적’의 의미를 한 번도 설명하지 않거나 맨 처음으로 제시하는 경우,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제시하는 경우 등 한 의미만 보아도 교재마다 ‘-도록’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문형으로는 ‘-도록 하다’만을 따로 가르치기도 하며 가르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며 동사와만 결합한다고 제시하거나 결합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록’에 대한 교재 제시 현황만 보더라도 ‘-도록’이 아직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으로 더 연구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국어교육을 위한 어미 연구를 더욱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록’의 교재 제시 문제점으로는 문법의 설명과 예문의 적절성이 있다. 문형을 통해 ‘-도록’은 형용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지만 모든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쁘도록, 착하도록”이 “예뻐지도록, 착해지도록”과 같이 ‘-아/어지다’를 통해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뀌어야만 ‘-도록’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형용사 중 “있다, 늦다”와 같이 자주 쓰여 굳어진 몇몇 표현만 ‘-도록’과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 중 일부”라고만 설명되어 있어 그 형용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또한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교재와 Workbook에 제시된 모든 문장 중에 형용사와 결합한 ‘-도록’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형용사와 결합한다고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교재에서 “있도록, 밤늦도록”과 같은 예문이 제시되었다. 문형 제시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도록’의 정의 설명에서 결합제약을 설명하지 않은 점과 ‘-도록’의 의미와 제시된 예문이 맞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다음의 문제점으로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네 가지 언어 영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사소통식 교수법에 의해 문법의 영역이 줄어들었으며 이를 한국어 교재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중심 교재는 문법에 대한 연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언어 영역에서의 연습에서도 문법 항목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을 진행할 때에 한국어 교사는 배운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운 문법과 그 의미가 과제와 맞지 않게 제시되어 있다면 교사는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역은 배운 문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Workbook은 문법이나 어휘, 표현에 대한 보충자료임에도 연습이 충분하지 않았다. 대부분 Workbook은 숙제로 제공되며 수업 중 문법 연습은 교사의 활동지로 진행된다. 그러나 Workbook이 숙제로 사용되는 것은 교재 개발의 목적도 아니었으며 숙제로 사용하기에도 연습이 충분치 않아 결국 교재 외에 활동지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의 기계적 연습부터 유의미한 연습까지 Workbook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문법의 활용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네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 교육의 비중이 적으며 이를 활용할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역의 제시도 충분하지 않고, Workbook에서의 연습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법 교육의 위치에서 ‘-도록’은 대체로 중급에서 제시된

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시되는 급부터 의미, 분류, 순서까지 제대로 정립된 부분이 거의 없었다. 이는 한국어 문법 제시 순서에 관한 교육과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실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 수준의 평준화를 위해 제시할 문법의 의미 분류, 순서, 연습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록’의 교재 제시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IV. 한국어 교재에서의 ‘-도록’ 제시 방안

이 장에서는 위에서 분류한 ‘-도록’의 의미와 기존 교재들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재 제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제시 방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따르고 있는 요즘의 교육 경향과 교재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제시할 것이다.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교육 순서에 따라 제시는 의미 제시와 형태 제시로 나누어 구성하고, 연습은 Workbook을 통해 기계적 연습과 유의미한 연습으로 구성한다. 덧붙여 기타 교재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법 설명과 예문의 적절성, 결합 제약 설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4.1. 급 설정 및 주제 선정

앞서 본 논문에서 분류한 ‘-도록’의 의미는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으로 4개이다. 그러나 통합 기능 교재에는 많은 한국어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각각 한 단원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몇 번에 걸쳐 어떤 의미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보도록 하겠다.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의 의미 중 ‘목적’의 경우 ‘결과, 방식, 방향, 의도, 의지 강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목적’의 의미에 이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목적’만으로도 ‘-도록’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명령의 의미는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여 목적과 명령의 의미를 한 단원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정도’도 ‘기준, 도달’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목적과는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시간의 한계’의 의미는 시간 또는 동작의 흐름 속에서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도와 시간의 한계**를 한 단원에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즉 문법 항목에 해당하는 의미의 수와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과 명령”, “정도와 시간의 한계”로 나누었다.

‘-도록’의 경우 앞의 교재 분석에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2014) “한국어교육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에서도 중급 문법에 ‘-도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문어적 표현인 ‘-도록’은 중급에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도록’의 경우 ‘목적’의 의미를 가질 경우 사동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 한 외국인 학생이 “운동하다.”의 목적을 말하기 위해 “살을 빼도록 운동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이 표현이 어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살이 빠지도록 운동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도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동의 역할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도록’은 3급 후반에서 처음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 중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어떠한 일의 목적과 결과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 3급 후반에서 ‘목적과 명령’의 의미를 먼저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도록’의 의미가 3급에서 다 제시될 수 없기 때문에 5급에서 나선형 학습으로 목적의 의미와 더불어 ‘정도, 시간의 한계’ 의미를 제시하도록 한다. 나선형 학습은 박선옥(2013)에서 “하나의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선형적인 교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나선형 학습에 대한 효과는 다수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도록’은 고급에서 한 번 더 제시·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도록’을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이유는 중급에서 배운 ‘-도록’이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반복·학습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이다. ‘-도록’은 문어체적 표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보다 교재와 같은 책을 통해 더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 교재에서 ‘-도록’을 처음 배운 다음부터 모든 급에서 ‘-도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 급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도록’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3급과 5급의 단위 주제를 설정하고 ‘-도록’을 활용할 과제를 구성하기로 한다. 교재 제시를 통해 살펴본 바로 ‘-도록’이 제시된 과제 또는 활동은 ‘소개하기, 조언하기, 의논하기, 계획하기, 동의하기, 의견말하기, 비평하기, 토의하기, 주장하기, 논거 들기’ 등이 있다. ‘목적, 명령’의 의미는 이 중 ‘소개하기, 조언하기, 주장하기’ 활동과 함께 제시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목적을 ‘-도록’을 통해 소개하고 조언할 수 있어 이를 과제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3급의 주제는 <생활 습관>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살이 빠지도록 달리기를 하였다.”와 같이 자신의 평소 생활을 이야기하고 조언해주며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를 토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도, 시간의 한계’는 5급에서 <축제 계획하기>의 주제로 ‘의논하기, 계획하기, 의견 말하기’ 활동과 함께 제시하면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일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도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도록’을 3급과 5급 두 번에 걸쳐 제시할 것이며, 3급에서는 “목적, 명령”의 의미를 <생활 습관>을 주제로 하여 ‘소개하기, 조언하기, 주장하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5급에서는 “정도, 시간의 한계”의 의미를 <축제 계획하기>를 주제로 하여 ‘의논하기, 계획하기’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교재의 전체적인 문법 제시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에 따라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교육 순서로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도입-의미제시-형태제시-기계적 연습-유의미적 연습-활용-마무리’의 진행이 교재 속에 드러나도록 한다. 또한 ‘도입-의미제시-형태제시-기계적 연습’은 본 교재 문법 영역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기계적 연습-유의미적 연습’이 Workbook에서 제시된다. ‘활용’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통합 과제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예문 및 문항 유형 등은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되 보완점을 개선하고 앞서 살펴본 ‘-도록’의 문법적 의미 분류를 바탕으로 구성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교재의 단위별 구성은 3급과 6급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4.2. 3급 제시 방안

3급에서 제시될 ‘-도록’은 <생활 습관>을 주제로 “목적, 명령”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문형은 동사와만 결합된다고 명시하기 위해 ‘V-도록’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 단원의 주제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조언하기, 소개하기”를 수행할 수 있는 예문과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문법 제시 구성은 “도입-의미제시-형태제시-결합 제약-기계적 연습-유의미적 연습-문법 심화”이며, 본 교재에서는 “도입-의미제시-형태제시-결합 제약-기계적 연습-문법 심화”를 제시하고 Workbook에서는 “기계적 연습-유의미적 연습”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교재에서의 문법 심화 부분은 한 문법에 대한 학습이 Workbook의 연습까지 모두 끝나면 그 문법만을 위한 심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존 교재의 경우 한 문법에 대한 학습이 완전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로 단원 내의 다른 학습 문법들과 함께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기능 연습을 진행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문법만을 위한 기능 통합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2.1. 본 교재 제시 방안

3급 본 교재에서의 ‘-도록’의 제시 부분을 도입과 의미 제시 부분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V-도록¹

친구에게 조언해줄 때 어떻게 말할까요?

(삽화)

A: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B: 그럼 좋은 성적을 받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A: 감기에 자주 걸려요.

B: 그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으세요.

‘-도록’ is attached to action verbs, and indicates purpose or result of the following action. and It is used to recommend or order an action to the conversation partner.
‘-도록’은 동작 동사에 붙고, 목적이나 뒤에 오는 행동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도록’은 권유 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명령할 때 사용한다.

<보기> 소화가 잘 되도록 천천히 먹어요.

목적

행동

- 땀을 충분히 흘리도록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강의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림 1〉 3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의미 제시 방안

문법의 도입은 ‘-도록’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 친구에게 조언해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삽화와 함께 2개 정도의 대화문을 제시하여 목표 문법의 결합 방식과 대화 배경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록’의 앞 문장과 뒤 문장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 갈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앞 문장의 내용이 긍정문일 때와 부정문일 때로 나누어 구성하여 부정문이 앞에 올 때에는 “않도록, 못 하도록”

과 같이 결합함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설명 부분은 표 안에 영문과 그 번역을 함께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대체로 3급까지는 문법 설명을 영문과 한글을 같이 제시하거나 영문만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도록’은 영문과 한글을 함께 제시한다.

‘-도록’의 경우 앞에 오는 문장은 목적을 나타내고 뒤에 오는 문장은 그에 따른 행동을 나타내는데, 국립국어원(2014)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어는 목적을 나타내는 내용이 뒤 절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도록’ 사용의 오류가 나타나기 쉽고 언급하였다. 이에 중국어권 화자가 아니더라도 <보기>와 같이 ‘-도록’을 처음 배우는 3급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내용이 앞 절에 오는 것을 명시하고 반복 제시한다면 한국어와 어순이 다른 언어권 화자들에게도 유용한 제시 방안일 것이다.

또한 목표 문법에 대한 예문을 3문장 정도 더 제시하여 앞 문장은 목적, 뒤 문장은 행동이 나타남을 드러내고 ‘-도록’이 명령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예문 또한 추가하였다. 이러한 예문은 교사가 정확한 발음과 억양, 속도로 말하면서 학습자가 따라 읽어 문법을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알아두기

★ ‘-도록’은 형태에 상관없이 결합할 수 있다.

동사(V)	받침 0 + -도록	먹다 걷다	⇒ 먹도록 ⇒ 걷도록
	받침 X + -도록	가다 보다	⇒ 가도록 ⇒ 보도록

★ 과거 ‘-었-’과 미래 ‘-겠-’과 같이 쓸 수 없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비료를 줘요. (O)

나무가 잘 자랐도록 비료를 줬어요. (X)

나무가 잘 자라곤했도록 비료를 줄 거예요. (X)

※ ‘-도록’ 뒤에 오는 문장을 생략하면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한다.

예) 30분간 휴식 후 다시 모이도록.

내일까지 모두 끝내도록

〈그림 2〉 3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형태 제시 방안

‘-도록’의 경우 받침의 유무나 동사 형용사의 결합에 따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형태 결합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법 교수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학습자에게 맡기고 “교재”는 형태 결합 정보와 결합 제약들을 충실히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형태 결합 정보는 동사와 결합되고 받침의 유무에 따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나타내었으며, 결합 제약으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었-’과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이 불가함을 한 문장에서 선어말어미만 교체하여 제시하면서 그 차이점이 보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도록’은 권유나 명령의 의미도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도록’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완전히 삭제한다면 좀 더 강한 의미의 명령형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한다는 대화자의 관계 또한 덧붙여 설명하였다.

연습 문제 다음을 맞게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보기> 발음이 좋아지다 ·	· 일찍 일어나세요
넘어지지 않다 ·	· 조용히 하세요
잃어버리지 않다 ·	·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아이가 잘 자다 ·	· 이름을 쓰세요
수업에 늦지 않다 ·	· 연습을 많이 하세요

<보기> 발음이 좋아지도록 연습을 많이 하세요.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그림 3〉 3급 본 교재에서의 기계적 연습 제시 방안

일반적으로 본 교재에서는 문법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예시만 드러날 뿐 문법과 관련된 반복 교체 연습이나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의 연계 연습까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한 문법에 관한 연습은 간단한 말하기 연습이나 한 두 문장 정도를 대화문에 채워 넣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한 가지 문법에 대한 연습보다는 단원 내에 함께 제시된 3-4가지의 문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과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습 부족 사항은 Workbook이나 교사의 활동지로 대체되고 있으나 이 전에 교재에서 연습 문제가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림3〉의 경우 ‘-도록’의 앞 문장에는 목적과 뒤 문장에는 행동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 굵기 연습을 통해 파악하고 ‘-도록’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연습 문제이다. 예를 들어 “넘어지지 않다”라는 목적에는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라는 행동이 뒤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록’이 사용되어야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이라고 결합 가능성을 눈으로 보고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법 항상시킴! 'V-도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① 나의 평소 습관을 3개 이상 적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습관	예) 물을 많이 마셔요.
	1.
	2.
	3.

② 친구의 습관을 듣고,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V-도록'을 사용하여 조언의 말을 해보세요.

(친구 이름)의 습관	1.
	2.
	3.
나의 조언	
(친구 이름)의 습관	1.
	2.
	3.
나의 조언	

〈그림 4〉 3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심화 연습

또한 문법 하나마다 좀 더 심화된 문제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3급의 주제가 〈생활 습관〉이므로 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소개할 수 있는 상황이 드러나는 연습을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자신의 습관을 3개 이상 적고 발표하고, 친구들의 습관을 받아 적어 표를 완성한다. 다음으로 친구들의 습관 중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거나 좋은 습관을 격려할 때에 'V-도록'을 사용

할 수 있음을 심화 연습을 통해 진행한다. 조언의 표현은 ‘-도록’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지만 ‘-도록’만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제한을 해놓음으로써 목표 문법에 대한 심화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기능 통합적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2.2. Workbook 제시 방안

Workbook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문법의 기계적 연습과 유의적 연습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존의 교재들은 연습 문제로 2개 이상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제시 방안에서는 적어도 3개 이상 문제를 구성하였으며 한 문제당 직접 작성하는 문항 또한 충분히 제시하였다.

01 대화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완성하세요.

<보기> 감기가 빨리 낫다 / 소화가 잘 되다 /
음식이 상하지 않다 / 시험을 잘 보다 / 살이 빠지다 /

1) A: 효설씨 요즘 운동해요?

B: 네, 살이 빠지도록 매일 운동해요.

2) A: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B: _____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요.

3) A: 요즘 춥고 몸에 열이 나요.

B: 감기인 것 같아요. _____ 병원에 가요.

4) A: 점심에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속이 안 좋아요.

B: 그럼 _____ 가벼운 운동을 해봐요.

5) A: 내일이 시험이라니, 너무 떨려요.

B: 맞아요. 우리 같이 _____ 조금만 더 공부할까요?

〈그림 5〉 3급 Workbook에서의 1번 문항

Workbook의 1번 문제는 두 명의 대화문에서 ‘-도록’과 결합하여 목적의 의미

를 나타낼 문장을 골라 알맞게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이다. 기계적 연습에 속하는 이 문제는 ‘-도록’과 결합될 문장을 이미 제시해주고 어울리는 뒤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본 교재에서 제시한 선 굵기 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대화문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대화문 통한 내용 유추는 목표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문장을 찾고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록’에 대한 문법적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02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환자: 기침이 자주 나요.

의사: _____ 기침이 나지 않도록 약을 처방해 줄게요.

2) 학생: 얼마 전에 한국에 온 고향 친구가 한국 생활을 힘들어해요.

선생님: _____도록 티엔씨가 많이 도와주세요.

3) 선생님: 바스카씨 왜 얼음찜질을 하고 있어요?

학생: 어제 너무 오래 걸어서 다리가 부었어요.

그래서 _____얼음찜질을 하고 있어요.

4) 학생: 선생님, 요즘 살이 많이 찌서 고민이에요.

선생님: 그럼 _____도록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그림 6〉 3급 Workbook에서의 2번 문항

유의미한 연습의 경우 덜 통제된 연습과 유도된 연습으로 구성된다. 덜 통제된 연습인 2번 문제는 목표 문법 항목을 써서 문장이나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으로, 학습자가 대화의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나 표현을 직접 골라 완성한다. 이는 대화 상황에서 ‘-도록’을 포함한 뒤 문장이 제시되었을 때 앞 문장에는 목적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앞 문장에 단순 어휘가 아니라 문장 단위의 표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앞선 발화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 칸을 채우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답을 쓸 수 있는 유도된 연습이 아닌 덜 통제된 연습이라 할 수 있다.

03 다음에 오는 문장을 ‘-도록’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완성하세요.

<보기> A: 밖이 시끄러워서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려요.

B: 그래요? 잘 들리도록 볼륨을 높일게요.

1) 친구: 다음 주 동창회 나올 수 있지?

나: 물론이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_____.

2) 직장 상사: 김 대리, 오늘도 늦었네요.

김 대리: 죄송합니다. 늦지 않도록 _____.

3) 손님: 음식이 맵지 않아서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직원: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맵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_____.

〈그림 7〉 3급 Workbook에서의 3번 문항

마지막 유도된 연습은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목표 문법과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적절한 대화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학습자가 문법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의 문장만 주고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은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학습자의 생각과 의견을 담을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활동이 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답을 듣고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하도록 유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덧붙여 유의미한 연습에서부터 대화자의 사회적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기존 교재의 경우 대화문에서도 A와 B로만 제시되었으나 ‘-도록’은 공적이고 상하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자 환자-의사, 학생-교사 등의 관계를 명시하였다. 물론 ‘-도록’이 항상 공적이고윗사람이 말하는 문법은 아니지만 기존의 교재들에서 제기된 대화자의 관계 명시 문제점을 이와 같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화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화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제시라 생각한다.

4.3. 5급 제시 방안

5급에서 제시될 ‘-도록’은 〈축제 계획하기〉을 주제로 “정도, 한계”의 의미와 더불어 3급에서 배운 “목적, 명령”의 의미 또한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단원의 주제는 〈축제 계획하기〉이기 때문에 “계획하기, 의견 말하기, 의논하기”를 수행할 수 있는 예문과 과제들로 구성하였으며, 5급에서의 ‘-도록’은 앞서 한 번 언급된 문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기 위한 활동과 제시는 배제하도록 한다. 또한 정도나 한계의 의미를 가진 ‘-도록’은 몇몇 관용적 표현들로 굳어 있기 때문에 뒤 문장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묶어서 외울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제시하도록 한다.

4.3.1. 본 교재 제시 방안

전체적인 문법 제시 구성은 앞서 3급과 마찬가지로 본 교재에서는 “도입-의미 제시-형태제시-결합 제약-기계적 연습”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5급의 ‘-도록’에 관한 도입과 의미 제시 부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도록²

어느 정도까지 이르는 한계를 강조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삽화)

A: 가나씨,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어디 아파요?

B: 어제 축구 보면서 목이 터지도록 응원했어요.

A: 어제 방송국에 갔다며. 내가 좋아하는 가수 보고 왔어?

B: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결국 못 봤어.

‘-도록’은 동사 뒤에 붙어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정도로’라는 의미로, 뒤에 나오는 행위의 방식, 정도, 시간의 한계 등을 나타낸다. 주로 느낌을 과장되게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된다.

- 그 영화를 보고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 만날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8〉 5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의미 제시 방안

문법 제시의 도입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르는 한계를 강조해서 말할 때에 ‘-도록’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간단한 삽화가 들어가고 정도의 의미를 가진 ‘-도록’의 관용적 표현을 활용한 대화문 두 개를 제시하였다. 대화문에는 “목이 터지도록”과 “목이 빠지도록”을 예문으로 하였는데 이는 비슷한 형태의 표현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혼란을 줄 수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문법 설명 부분은 고급 단계인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한글로 설명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정도로’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덧붙여 관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며 3가지 예문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문은 관용적 표현이고 마지막 문장은 “되도록”이라는 정도,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알아두기	
★ ‘-도록’은 형태에 상관없이 결합할 수 있다. ★ ‘-도록 하다’는 앞 절의 진행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 ★ 정도, 한계를 나타내는 관용표현들을 알아두자.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다	뼈가 빠지도록 일하다 목이 터지도록 응원하다 밤이 늦도록 계속되다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다

〈그림 9〉 5급 본 교재에서의 문법 형태 제시 방안

“알아두기”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도록’이 형태 결합에 있어서 제약이 없음을 설명한다. 이는 앞 3급에서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5급에서는 간단하게 제시한다. 두 번째는 ‘-도록 하다’ 문형에 관한 설명이다. ‘-도록 하다’의 경우 ‘-도록’ 자체에 대한 의미 보다 ‘하다’가 표현하는 의미에 따라 ‘-도록’의 정의가 달라지므로 ‘-도록 하다’ 문형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즉 본 논문에서는 ‘-도록 하겠다, -도록 하세요’의 표현이 뒤의 ‘하다’에 의한 문장의 의도 변화일 뿐 ‘-도록’과는 연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록 하다’의 문형을 설명하는 이유는 ‘-도록 하다’에서의 ‘하다’는 앞 절의 내용이 생략되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도록’에 대한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에 ‘-도록 하다’ 문형을 앞 절의 진행 의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으며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함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도, 한계를 나타내는 관용표현들을 나열하여 제시

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용 표현의 ‘-도록’ 문형들을 추려내어 최대한 많이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연습 문제 다음을 맞게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보기> 밤이 늦도록 ·	· 칭찬하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	· 기다리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	· 계속되었다.
목이 빠지도록 ·	· 빌다.
배꼽이 빠지도록 ·	· 듣다.
손이 발이 되도록 ·	· 웃다

<보기>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그림 10〉 5급 본 교재에서의 연습 문제 제시 방안

문법 제시 부분 다음으로 이어질 연습 문제는 앞의 3급과 마찬가지로 선 곳기로 구성하였다. 연결어미의 경우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였을 때 그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목표 문법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미에 대한 문법 설명 이후에는 간단한 선 곳기나 빈칸 채우기 등의 연습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을 유용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여 선 곳기 연습 문제로 구성하였다.

연습 문제는 앞의 관용 표현 목록에 제시된 예문들을 그대로 문제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목표 문법에 대한 응용이 아닌 교재에 제시된 예문을 먼저 이해하고

직접 써봄으로써 표현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3.2. Workbook 제시 방안

5급의 Workbook에서는 3급과 마찬가지로 문법의 기계적 연습과 유의적 연습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본 제시 방안에서 또한 적어도 3개 이상 문제를 구성하였으며 기계적 연습, 덜 통제된 연습, 유도된 연습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01 알맞은 것을 골라  표 하세요.

1) A : 왜 아직까지 식사를 안 하고 있어요?

B : 마이클 씨와 같이 (먹도록,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2) A : 어제 여의도 불꽃 축제에 갔었다며? 어땠어?

B : 밤이 (늦는 바람에, 늦도록) 축제 분위기여서 너무 즐거웠어.

3) A : 지난주에 면접은 잘 봤어?

B : 그럭저럭. 근데 발표 날짜가 다 (되려고, 되도록) 연락이 없어. 떨어진 것 같아.

4) A : 이 화분의 꽃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B : 꽃이 잘 (자라도록, 자라다시피) 일주일에 두 번 물을 충분히 주세요.

〈그림 11〉 5급 Workbook에서의 1번 문항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 단원에 3개 이상의 문법을 함께 학습한다. 이렇게 구성된 문법들은 단원의 주제에 맞으며 학습자 수준에 맞는 문법으로 선별·구성된다. 이러한 기존 교재에서의 제시 방안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5급 <축제 계획하기> 단원에서 ‘-도록’과 함께 학습할 문법으로 “-려고, -은/는 바람에, -다시피”로 구성하였다. 이 표현들 모두 중·고급용 문법이며, <축제 계획하기>라는 과제를 수행할 때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번 문항은 “-도록, -려고, -은/는 바람에, -다시피”를 모두 연습하고,

그 구분을 함으로써 문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자 구성한 문항이다. 또한 ‘-도록’을 3급과 5급으로 두 번에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 이유가 3급에서 학습한 ‘-도록’을 충분히 습득한 후 나선형 학습으로 5급에서 다시 한 번 학습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므로 Workbook에서 ‘-도록’의 모든 의미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도록’의 “목적, 명령, 정도, 시간의 한계” 의미를 Workbook의 문항으로 통해 상기시킬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번 문항을 자세히 보자면 모든 답이 ‘-도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록’의 관용 표현이 답인 문제 2개, 목적의 의미를 표현하는 ‘-도록’이 답인 문제 1개로 구성하였다.

02 대화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완성하세요.

<보기> 땅이 꺼지다 / 입에 침이 마르다 /
손이 발이 되다 / 귀에 못이 박히다

- 1) A : 우리 엄마는 나한테 TV도 보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매일 잔소리하셔.
B : 나도 공부하라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께 듣고 있어.
매일 똑같이 말씀하셔서 외울 지경이야.
- 2) A : 어떡하지? 엄마가 아끼시는 반지를 몰래 끼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어.
B : 저런, 어쩌다가 그랬어? _____ 빌면 한번 봐 주시지 않을까?
- 3) A : 민수 씨에게 무슨 일 있어요? 큰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B : 아버지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네요. 지금 너무 바빠서 고향에 가 볼 수도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아까도 _____ 한숨을 쉬더라고요.
- 4) A : 이 집 음식 소문대로 정말 맛있네요. 재료도 신선하고 양도 많고 서비스도 좋고요.
B : 맞아요. 사람들이 이 음식점을 _____ 칭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네요.

〈그림 12〉 5급 Workbook에서의 2번 문항

다음으로 2번 문항은 관용 표현을 연습하기 위한 문항이며 대화문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대화문의 경우 학습자 수준이 5급이므로 대화문의 길이가 앞의 3급보다 길게 제시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자연스러운 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3급 Workbook에서는 기계적 연습 문항으로 1번 문항으로 제시하였던 형태를 5급에서는 2번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도록’에 대한 관용 표현은 ‘-도록’이 포함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외워야하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손이 발이 되다”라는 표현만 보고 뒤에 어떤 내용이 올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관용 표현은 전체 앞 뒤 문장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2번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03 ‘-도록’을 사용해 다음 대화를 자유롭게 완성하세요.

- 1) A : 미카씨 무슨 걱정 있어요? 왜 땅이 꺼지도록 _____ 한술을 쉬어요.
B : 어제 명동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걱정이에요.
- 2) A : 이 식당엔 사람이 많네요? 맛집인가 봐요.
B : 제가 _____도록 칭찬한 그 식당이에요. 오늘 여기서 점심 먹어요.
- 3) A : 감기 걸렸어요? 목이 많이 쉬었어요.
B : 아니요. 어제 콘서트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_____.
- 4) A : 이 제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B : 전자 제품이니까 물에 닿지 않도록 _____.
- 5) A : 우리 여행 가이드 해주시는 분 맞죠? 이번 여행안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B : 네.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_____.

〈그림 13〉 5급 Workbook에서의 3번 문항

5급 Workbook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될 문항은 앞서 말한 대로 ‘-도록’의 모든 의미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도록’의 앞 또는 뒤의 문장을 자유롭게 완성하는 유의미한 연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학습자가 ‘-도록’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듣기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용 문법 항목 연구의 필요성 재고와 한국어 문법의 효과적인 제시를 위하여 어미 ‘-도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지향한다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점점 어휘·문법의 형태, 규칙 등에 무관심해지면서 또 다시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유창성과 정확성은 양면의 동전과도 같아서 둘 중에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고 둘 다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교수할 때 유창성과 정확성 중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최대한 모두 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언어 교사의 몫인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들만 보아도 문법의 제시나 연습이 충분치 않다. 대부분의 수업이 말을 통해서 교사 또는 동료 학습자와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만 언어를 배우는 데에 있어 어휘·문법을 빼고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현재는 언어 교수법의 경향이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언어 교사들 또한 유창성에 초점을 두어 수업, 교재, 활동지 등을 구성하는 것이다.

시대별 언어 교수의 흐름을 보았을 때 문법 중심 교수법을 지속해서 그 비중을 줄이고자 하였지만 문법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연구되었다. 물론 현재 또한 문법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지만 한국어교육 전공분야에서의 문법 연구는 다소 부진한 경향이 있다.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은 “교육학”으로서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에서부터 연구 대상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현장 중심 교육학과 영어 교육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교육학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어교육학만의 이론적 연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어순이 있지만 비교적 자유로우며 선어말 어미, 의존명사, 보조 동사와 같은 한국어만의 고유한 특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의 이론을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국어학에서 연구한 국어 정보는 외국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어미 ‘-도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의미 연구와 제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록’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4종, 문법서 6종을 참고하였으며 문법 항목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문헌을 살펴보고 ‘-도록’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국어문법서의 경우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문헌들에서 언급된 ‘-도록’의 의미는 총 13가지였다. 이 중 ‘-도록’이 ‘목적’의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한 자료의 수를 통해 ‘목적’의 의미는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7권의 자료에서 4권 이상 언급된 의미로는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이 있다. 즉 1차적으로 빈도를 통해 ‘-도록’의 의미를 거른 결과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이 4개의 의미 외의 의미들을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의 의미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확인하였다.

대체로 ‘결과’는 ‘어떠한 목적에 수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에 포함시켰으며 ‘방식’도 어떠한 행위의 방식이 주어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에 포함시켰다. ‘의도, 주어의 의지 강조’는 ‘-도록’이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분류하고자 ‘의도, 주어의 의지 강조’라는 의미 분류를 새롭게 하겠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에는 ‘결과, 방식, 의도, 의지 강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정도’는 ‘방향’과 함께 묶일 수 있는데, 정도는 진행 과정 중의 어떠한 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기준, 도달’도 ‘정도’의 의미로 포함될 수 있다. 즉 ‘정도’의 의미에는 ‘방향, 기준, 도달’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간의 한계’의 경우 다른 의미와는 섞일 수 없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명령’은 ‘-도록 하다’와 같은 형태로 쓰일 때 ‘명령’의 의미를 가지며 단지 ‘-도록’만으로는 ‘권유’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사동’은 명령형, 청유형과 같은 문체에 따라 사동의 대상이 달라져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이를 교육하기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도록’에 대한 의미를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으로 추려내었다. 기존의 ‘-도록’에 관한 의미는 ‘도급, 정도, 목적’이었으나 도급과 정도의 의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명령, 권유의 의미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

다. 이에 반해 ‘목적, 정도, 시간의 한계, 명령’의 구분은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교재 분석을 통해 최근 개편된 한국어 교재들은 본 논문과 같이 문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교재에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 교재 구성 틀을 유지하되 문법 참고서를 새롭게 출판하여 문법만을 따로 묶어 집필한 이화여자 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교재를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이러한 교재 개발 방향은 문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만 제공해줄 뿐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언어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특히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는 어떠한 대상이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독학용이 아닌 수업용 교재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이론적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들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한 단원에서 제시되는 3개 이상의 문법들을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기능을 통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에는 문법에 대한 형태 제시, 결합 제약 제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법별 연습 문항 또한 적어 교사들의 활동지 개발이 필수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재 구성에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법 항목의 구체적인 연습과 제시를 추가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교재 제시 방안에 대하여 삽화나 글씨체와 같은 구체적인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구성 내용에만 집중한 점과 학습자의 오류 양상 등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목표 문법에 대한 형태 제시, 의미제시, 결합 제약 제시 등을 교재에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예문과 대화문의 양을 늘려 목표 문법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Workbook에는 기존의 부족한 문항 수를 늘리고 기계적 연습에서 유의미적 연습으로 단계별 심화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한 점이 의의라 할 수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는 요즘, 회화를 지향하는 의사소통 중심 교재에 문법 교육에 대한 구성에 조금 더 신경 써 유창성과 정확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국립국어원. (2014).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11). 『재미있는 한국어1-6』. 교보문고.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권오량 외 역. (2005). H.Douglas Brown. 『원리에 의한 교수-언어 교육에서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김원경, 고창수. (2016). 『꼭 알아야 하는 한국어 문법』. 한국문화사.

김종록. (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도서출판 박이정.

남기심, 고영근. (2007). 『표준국어문법론』. (주)탐출판사.

백봉자. (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9). 『서강 한국어1-5』. 도서출판 하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6). 『서울대한국어1-6』. 투판즈.

서종학, 이미향. (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09). 『연세 한국어1-6』. 연세대학교 출판부.

우형식 외. (2015).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수법』. 한글파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0). 『이화 한국어1-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희자, 이종희. (1999).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이희자, 이종희. (2008).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 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6』. 도서출판 하우.

허동진. (2006).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2. 연구논저

강경하. (2014).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 표준화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경. (2007). 한국어 교육용 문법항목의 제시 방법에 관한 연구 -"-더-" 관련 문법항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2, 61-80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고경민. (2014). 한국어교재의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고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8-2, 275-298쪽, 우리말교육현장학회.

_____. (2015).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 및 교재 개발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2, 164-192쪽, 우리말교육현장학회.

구민지. (2012). 한국어교육 : 한국어 읽기 교육 이해질문 분석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이해질문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92, 495-522쪽, 한국국어교육학회.

권미미. (2008). 한국어교육문법의 인과 관계 연결어미 연구. 『교육문화연구』, 14-2, 147-174쪽,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김문기, 김형복. (2016). 한국어문법“-으면”과“-었으면”의 교수, 학습내용 연구. 『인문학연구』, 102, 1-21쪽,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보은, 박종호. (2013). 한국어 연결어미 "-더니"의 특성과 기술 방안 -한국어 교재, 문법서, 사전의 기술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2, 131-172쪽,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김선정. (2010). 한국어 교사 교육용 교재의 개발 현황 및 개발 방향. 『교육문화연구』, 16-1, 59-83쪽,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윤주. (2012).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교재의 학습 한국어 단원 구성 방안.

- 『이중언어학』, 50, 25-46쪽, 이중언어학회.
- 김인규, 강남옥, 김호정. (2014).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문법서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조사. 『한국어문학연구』, 63, 443-483쪽, 동악어문학회.
- 김정은. (2015). 일반논문 : 한국어교재의 비언어 표현과 문화교육. 『한국어와 문화』, 18, 403-422쪽,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김제열. (2001).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 203-229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김형복. (2013). 전략 중심의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문화교육』, 7-2, 55-82쪽, 한국어문화교육학회.
- 김혜련. (2013). 다문화 가정 중등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교육연구』, 56, 7-30쪽,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혜성. (1993) - 도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8-1, 63-79쪽.
- 도원영, 차준경.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1권, 1-54쪽.
- 민현식. (2000). 한국의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 :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7, 5-60쪽,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나리. (2016). 학문목적 한국어 교재의 비평 쓰기에 대한 분석과 제언. 『한국문예창작』, 15-1, 239-265쪽, 한국문예창작학회.
- 박선옥. (2013). 형태와 기능 통합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연구. 『漢城語文學』, 32, 433-454쪽,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 방성원. (2002).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 13-1, 107-125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한국어 문법화 형태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1, 92-93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낙천. (2009). 특이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도록’, ‘-을수록’, ‘-락’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3집, 동악어문학회.
- 서정수. (1987). “게”와 “도록”에 관하여. 『人文論叢(The Journal of Humanities)』, 40, 41-67쪽,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 서희정. (2012).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을 위한 보조사 결합형 문법항목의 선정 방안 - "는", "도", "만", "야" 결합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3, 437-467쪽, 한국국어교육학회.
- 석주연. (2006).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의미학』, 19, 37-63쪽, 한국어의미학회.
- 성지연, 도원영. (2014).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법 교육 항목 선정과 제시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7, 127-157쪽, 한민족문화학회.
- 송대현. (2014). 국어학 :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연구. 『새국어교육』, 101, 457-484쪽, 한국국어교육학회.
- 신현숙, 이지영. (2004). 한국어 교재의 단원명과 단원 구성: 1981~2003. 『한국(조선)어교육연구』, 2, 323-343쪽,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 심민희. (2012).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의 간투사 연구. 『人文研究』, 65, 127-162쪽,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안경화. (2010).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법 교육 양상.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 435-435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오로지. (2012). 연결어미 "-고도", "-고는"의 문법, 의미 기술에 대하여 - 한국어 교육용 문법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2, 110-118쪽, 한국문법교육학회.
- 오미정, 이해용. (2007). 한국어 외래어 교육과 교재 개발. 『한국어 의미학』, 23, 75-97쪽, 한국어의미학회.
- 오상언. (2010).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교육용 분류사 선정 연구. 『高凰論集』, 47, 33-63쪽, 慶熙大學校 大學院.

- 오운경, 신연수. (2015). ‘-도록’의 의미-도급에서 온 목적. 『국어학』, 74, 267-302쪽, 국어학회.
- 유해준. (2014). ‘-기’ 포함 한국어 문법 항목 구성 방안. 『語文論集』, 59, 433-454쪽, 중앙어문학회.
- 유현정. (2013).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 한국어 교재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 -발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32, 489-511쪽,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 윤평현. (1981). ‘-도록’의 의미와 문법. 『한국언어문학』, 20, 27-51쪽,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1988). ‘-게, -도록’의 의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307-318쪽, 국어국문학회.
- 이래호. (2014). 한국어 교재에서 제약 중심의 연결어미 기술의 방향과 그 교육에 대한 연구. 『언어학연구』, 31, 201-226쪽, 한국중원언어학회.
- 이소영, 한성일. (2008).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과 과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1, 257-302쪽, 우리말교육현장학회.
- 이시윤. (2015). 「한국어 통합 교재 듣기 활동의 듣기 세부기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민. (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설명에 대한 재고. 『시학과 언어학』, 8, 143-156쪽, 시학과 언어학회.
- 이영숙. (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태와 효율적인 교육 방안 연구. 『교육한글』, 16, 35-57쪽, 한글학회.
- 이은희. (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게}와 {-도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15). 국어학 : 한국어 친족 호칭어 및 지칭어 교육 현황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교재를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34, 1-33쪽,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 이은희, 박새암. (2008).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교재 분석 연구. 『소통과 인문학』, 6, 77-107쪽,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 이해영. (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분석 -"이/가"와 "은/는"을 대상으로-. 『문법 교육』, 1, 231-256쪽,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현정, 최영룡. (2013). 한국어 교육용 연결어미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구어·문어 빈도 및 교재 중복도 등의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9-3, 245-269쪽,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효상. (2005). 한국어 문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16, 241-270쪽,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장채린, 강현화. (2013). 한국어 교육용 문법 항목 선정 및 복잡도 산정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2, 107-125쪽, 한국문법교육학회.
- 전통화. (2011). 기초한국어 교재 문법항목 기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한국어와 문화』, 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정미진. (2012). 외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문법 교재의 문법 제시 방안 연구 -담화·맥락 정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1, 307-329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정희정. (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제안. 『문법 교육』, 1, 185-212쪽, 한국문법교육학회.
- 조영미. (2009).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 검토. 『漢城語文學』, 28, 135-159쪽,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 조항록. (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 14-1, 249-278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효염. (2014). 「연결어미 '-게'와 '-도록'의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곤. (2011). 한국어교육 : 중국어권 한국어 문법의 교재 용어 분석(1) - 품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577-600쪽,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정순. (2012). 구어 문법 기반 한국어 듣기 교재의 지향성 논의. 『국어교육연구』, 30, 343-369쪽,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포정원. (2015). 「한국어 연결어미 '-도록'의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grammatical semantic classification of ending
'-dorok' and the way of presentation in the Korean textbook

Lim, Na-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current trend of Korean textbook development study proposes a specific textbook development method by the students learning Korean and focusing on grammar, function of the language. The direction of such studies is decided by the current teaching method. Reflecting the current teaching method which signifies fluency rather than accuracy, the direction propose improvement of functional skills such as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rather than grammar. Along with the studies, the textbooks published by colleges show lesser contents regarding specific meaning, limitation and practice about grammar. To fill the insufficient contents in textbook, activity paper is essential which the burden to teacher becomes. Therefore, education such as explanation or practice about grammar in Korean textbook must not be neglected, and the studies that can propose grammar content in textbook, the medium between teaching and learning must be continued.

Therefore this study starts from a point that a study regarding grammar contents of Korean education is in need, and aims to discuss the textbook

development method to effectively propose grammar contents to Korean textbook.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condition of textbook focusing on ending of word, "-dorok", and proposed textbook development method based on this.

As the result of literary research, "-dorok" was defined as "objective, result, direction, degree, limit of time, order, cause, method, arrival, recommendation, standard, intention, and emphasis of will". The study found out that these definition refer to same meaning, and therefore picked out the meaning of "-dorok" as "objective, degree, limit of time, and order". The definition of "-dorok" used in previous Korean education was "course, degree, and objective" but as the meaning of "course and degree" is unclear, and the order did not consider the meaning of recommendation. However, the definition of "objective, degree, limit of time, and order" is comparatively clear.

Based on such classification of definition, the study examined general purpose Korean textbook published by colleges. As the result, from level 2 to 6, the presented level of "-dorok" was diverse, among which referred that it can combine with verb and adjective, and in others, it wasn't. Also, in a textbook which explained "dorok" can be combined with adjective did not provide any example. The number of presentations of "-dorok" was different by textbook from 1 to 3 times, and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textbooks were insufficient in providing examples or practice of "-dorok" rather than the definition explanation.

Based on this, this thesis supplemented problems in current Korean textbook and proposed to explain "-dorok" for level 3 and 5. The level and topic selection standard of definition division is first, the proper explanation of meaning and amount by the level, second, the importance of oral and written language, third, the classification by usage of "-dorok". In other words, the various definitions of "-dorok" are distributed properly by levels, explained popular written expression in intermediate level, and explained the popular oral expression in advanced level.

In conclusion, this thesis has recognized there is a grammar for Korean education which requires specific foundation and indicates "-dorok" has the most

diverse range of definition and explanation in Korean textbook. The thesis is significant in revising, supplementing the problem to propose specific textbook development method.

【Key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Textbook, Korean grammar, -dorok, ending, semantic classification